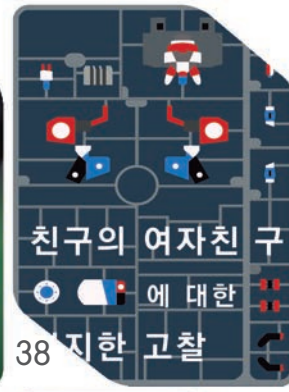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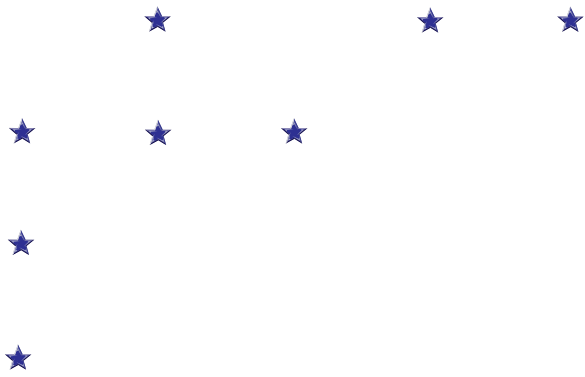


Contents





2016 December

R.O.K AIR FORCE
VOLUME 462

공군 IN •

06	Pioneer's Opinion	김주환(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08	기획특집①	공군지가 선정한 2016년, 공군 10대 뉴스
10	기획특집②	6·25전쟁에 참전한 호주 공군 방문 취재기
20	기획특집③	사상 최초, 한·미·영 공군 연합훈련
22	포토 프레임@AF	11월의 참모총장 동정
24	Air Force Monthly	11월의 공군 소식
26	하늘을 향한 시선	응답하라! 대한민국 공군!
28	조인, 조인!	스타트업 회사 '어반베이스'
32	신고합니다!	15비 대공방어대 병장 서기원 & 일병 장호중
34	공군이 되는 9가지 방법	<제6화> 공군장학생
38	공군 문학전	친구의 여자친구에 대한 진지한 고찰
42	Fitness	생활 속 자세 바꾸기



GLOBAL & INSIGHT •

44	Air-power Report	KB SAT 'SR-10'
46	공군 재무관리본부	연말정산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표지(앞)
아듀, 2016년 공군
디자인 예)병장 김정우(병 708기)

커버스토리
글 소령 박윤서(홍보과)

CULTURE 36.5 •

48	Hollywood English	론 서바이버
50	트렌드가 보인다	스마트 의류(Smart Wear)

OPINION •

52	생각하는 그림	마의 10초 벽
54	담벼락	크리스마스(성탄절)
56	책 읽는 공군	황옥이와 함께 하는 강릉기지 공군 이야기

발행일자 2016년 12월 1일(통권 제462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경두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한상균

편집감수 중령 윤영삼, 소령 박윤서

기획·편집 대위 이상우, 하사 김재겸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6110463)
(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Pioneer's Opinion

신냉전 시대 : 대한민국 공군의 책무

글쓴이는 한국외대를 졸업한 뒤, 유엔캄보디아과도행정기구(UNTAC)에서 활동했으며, 인하대에서 미·중 관계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로 활동 중이며, 한국국방정책학회와 국제정치학회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항공우주력(Air & Space Power) 미래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요소」

지난 5월, 루마니아 남부 데베셀루(Deveselu) 공군기지에 이지스 포대(Aegis Ashore)가 설치됐다. 미 해군의 이지스 방어체계를 지상으로 옮긴 것이다.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 안보에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넉 달 뒤, 미국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미 공군 114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1개 편대가 폴란드 중부 라스크(Lask) 공군 기지로 이동 배치됐다. 사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과거 냉전 시절에는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Pact)의 일원이었다. 냉전이 끝난 지난 1994년 나토(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PfP: Partnership for Peace)’ 전략에 따라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이 되었다.

두 나라가 자국의 안보 증강에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이 계기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는 ‘신냉전(New Cold War)’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 말은 2014년 11월 냉전 종식에 기여했던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과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신냉전의 도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이후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냉전 시기는 이념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진영으로 나뉘었다. 각 진영은 서로에 대한 침범을 자제한 채 핵무기를 기반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뤘다. 그런데, 신냉전은 국익과 지역전략의 이익을 우선하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자 미국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반대로,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러시아 남부에서 터키 서부 지역까지 1,100km에 이르는 ‘터키 스트림’ 가스관 건설을 러시아와 합의한 것도 이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냉전은 경쟁과 협력이 혼재된 구도를 갖고 있다. 단순히 갈등과 협력 중의 택일이 아니라, 갈등과 협력, 위기와 발전, 그리고 공생(共生)이 서로 얽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적과 동지’ 식의 냉전적 사고로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없다. 이를 ‘복합 동맹(complex alliance)’이라고 한다. ‘투이불파(翻而不破 · 다투면서도 관계 자체를 깨지는 않는다)’인 셈이다.

신냉전의 이면에는 과학기술을 접목한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이 자리잡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3차 대응전략(Third offset strategy)’의 토대가 되고 있고, ‘재래식 신속지구공격(CPGS: Conventional Prompt Global Strike)’과 ‘전장의 무인화’가 그 핵심 군사전략이다.

그런데 전장의 무인화 추진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우리 군 내부에는 아직도 적 지상군과의 직접적인 지상 전투를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보니 전투 개념도 ‘공지전투(ALB: Air-Land Battl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군사 강국들은 이미 ‘공해전투(ASB: Air-Sea Battle)’라는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을 지구촌 분쟁 곳곳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 개념을 적용하면 공중, 지상, 바다, 우주, 사이버 공간 등 모든 영역에서 이른바 크로스 도메인(Cross-domain)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늘날 공군력은 모든 전장을 지배한다.”

이러한 미래 전투현장의 첨병이 바로 ‘공군’이다. 앤드류 발렌스(Andrew G.B. Vallence)가 『The Air Weapon: Doctrines of Air Power Strategy and Operational Art』에서 밝힌 “오늘날 공군력은 모든 전장을 지배한다.”는 명제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대한민국 공군의 비전 가운데 “우리의 미래는 경제적 조건이나 외부적 영향력 혹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이 우리 공군이 추구해야 할 ‘항공우주력(Air & Space Power)’의 핵심이다. 미래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공군지가 선정한
2016년 공군 10대 뉴스

글·편집
대위 이상우(홍보과)



공군지가 선정한

2016년 공군, 화제의 10대 뉴스

2016이라는 숫자가 익숙해진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2017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아마 2016년은 그 어느 때와 비교하더라도 대한민국 공군의 활약이 돋보인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4차(1. 6.), 5차(9. 9.)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공군은 불철주야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영공방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였다. 또한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심층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왔으며, 공군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민들과 더욱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12월을 맞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로, 다사다난 했던 2016년 공군 화제의 10대 뉴스를 돌아보았다.



No. 1 한국 공군 단독 대규모 종합전투훈련, 'Soaring Eagle'

해마다 공군의 최강 공중전력이 총 출동하는 대규모 종합전투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름하여 'Soaring Eagle' 훈련! 총 60여 대의 최정예 항공기와 500여 명 이상의 작전 및 지원요원이 참여하여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발생 이후인 2월과 UFG 연습 기간에 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우리 공군의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주었다.



No. 2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2016년 싱가포르 에어쇼 메인이벤트 장식!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로 고난도 에어쇼를 선보이는 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 2016년 2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메인이벤트를 장식해 세계인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특히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이며, 아시아 최대 규모 항공 산업 전시회로 꼽히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선보인 고난도 에어쇼는 T-50 계열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No. 3 역대 최대 규모 한미 공군 연합훈련, 'Max Thunder'

2016년 4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따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 공군이 대규모 연합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을 진행하였다. 2016년 맥스 선더 훈련은 역대 훈련 중 최대 규모로 한미 연합 총 110여 대 항공기와 1,200여 명의 장병이 참여해 높은 수준의 전술전기를 연마하고 상호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특히 한국 공군 작전사령관과 미7공군사령관이 상대측 전투기에 교차 탑승하여 지휘비행을 실시하여 동맹군으로서의 우정과 신뢰를 한층 강화하였다.



No. 4 대한민국 공군,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참가

미 태평양공군 사령부가 주관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6대와 C-130 수송기 2대가 참여하였다. F-15K 전투기는 10시간 가량 논스톱으로 비행하며 미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 기지로 전개했으며, 다국적 연합공군과 공중종합 전투기동 훈련을 실시하여 최고의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높였다. 또한 C-130 수송기는 최초로 한국군 외 병력인 미 육군 전투팀을 공수하여 양국군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였다.



No. 5 미 전력자산 한반도 전개, 한·미 연합공군 대북 무력시위

2016년에는 4차, 5차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Strato Fortress), B-1B(랜서, Lancer), F-22(랩터, Raptor) 등 미 공군의 강력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전개하였으며,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연합 저공비행을 실시하여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한 양국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No. 6 공군 사이버방호센터 창설

공군의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사이버방호센터'가 2016년 7월 1일부로 창설되었다.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와 방산기업·군 전산망 해킹 등 적대세력의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되었다.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방호센터를 통해 적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시켰다.



No. 7 공군 항공안전단,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

군내 유일의 안전관리 전문부대인 공군 항공안전단은 2016년 7월,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전문 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11월부터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안전과 관련된 각종 연구, 교육, 사고조사, 비행절차 표준화 등 우리 군의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항공안전단이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시행하여 국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No. 8 공군과 함께하는 2016 사천에어쇼

대한민국 공군과 경상남도 사천시는 2016년 가을, 공동 주최로 '공군과 함께하는 2016 사천에어쇼'를 개최하였다. 국민에게 항공우주력에 대한 이해증진과 신뢰받는 공군의 모습을 선보이는 에어쇼 및 축하 공연과 더불어 다양한 항공관련 체험 프로그램과 행사가 진행되었다. 관람객들이 실제 체험하며 느껴 볼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No. 9 제38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6

명실 공히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 있는 항공과학 축제로 자리매김한 '스페이스 챌린지'가 38회를 맞이하며 2016년 9월,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예선 대회에는 총 8천여 명의 참가 선수와 8만 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으며, 본선대회에서는 항공과학 최신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분야의 '실내 드론 정밀조종', '실내 드론 레이싱' 등을 시범종목으로 운영하였다.



No. 10 배우 고아라, 공군 홍보대사 위촉

4월 11일에는 현역 공군 부사관의 딸로, 유년시절 공군에서 자란 배우 고아라 씨를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고아라 씨는 "공군 가족으로서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왔는데 평소 동경해오던 공군의 홍보대사를 맡아 정말 영광입니다."라며, "공군의 멋진 모습을 알리는 데 힘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홍보대사로서의 소감과 다짐을 전했다.



공군 IN

기획특집 2

6·25전쟁에 참전한 호주 공군 방문 취재기

글
소령 박운서(홍보과)사진
중위 김형진(홍보과)

6·25전쟁에 참전한 호주 공군 방문 취재기

“휴전 직전까지 언제 끝날지 몰랐던 전쟁...
한국에서의 모든 비행은 위험했습니다.”

AF 6·25전쟁에 참전했던 당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JN 저는 1953년 3월 초에 김포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만 당시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동료들끼리는 매우 친했고 사기도 높았습니다. 경험이 많은 조종사들은 새로 부임한 조종사들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모두 막 임무를 부여받은 상태였지만 프로답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둔했던 김포기지는 전선으로부터 15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전선에서 얼마나 가까웠는지 밤이 되면 총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치되었을 당시에는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 불확실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의 일상은 똑같았고, 항공작전도 항상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휴전 직전까지 우리는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AF 한국에서 임무를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JN 모든 비행이 위험하기 마련입니다. 아침 일찍 혹은 오후 늦게 비행을 하면 햇빛도 적고 언덕의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서 지상에 추락할 위험이 컸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형은 험준하고 산악지형이 많아서 더 위험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계절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 주의 최저 기온은 (3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하 8도 이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반도 전체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자 온 기지가 질퍽질퍽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미사일이 담긴 철제 케이스들이 텐트 안으로 흘러 들어올 정도로 기지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활주로도 굉장히 짧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지도가 없던 것도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계곡, 강, 철로, 언덕, 능선 등의 지형지물을 참조해 길을 찾았습니다.

6·25전쟁에 참전한 호주 공군을 취재하기 위해 ‘호주’를 직접 찾아가 취재팀은 당시의 치열한 전투상황과 유엔군 조종사들의 활약상을 듣기 위해 참전 조종사를 수소문했고 호주 공군의 도움을 받아 시드니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6·25전쟁 참전 조종사 두 분을 만날 수 있었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노병은 아직도 정정한 모습으로 취재팀을 맞아 주었다.

첫 번째 만난 조종사는 올해로 85세인 존 뉴햄(John Newham) 씨로 '51년 호주 공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서 70여 회를 출격했다. 한국 외에도 말레이시아, 몰타 등 여러 지역에서 해외파병을 경험한 바 있다. 호주 공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뉴햄씨는 '85년에 제20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해 호주 공군을 이끌었으며, 은퇴 후에도 공익 재단 이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바 있다.

AF 임무 중에 미그기(MiG)와 조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JN 제가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미그기를 직접 보는 것은 우리에게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호주 공군의 미티어(Meteor) 전투기는 초기에 공중전에 투입되었으나 미그(MiG)-15기에게 밀린다는 것이 명백했고, 이후에는 주로 지상 지원의 임무를 맡아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지금은 고인이 된 조지 헤일(George Hale)이 미그기들과 맞닥뜨린 적이 있는데 그는 미그기 2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당시 미그기들이 미군 전투기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조지 헤일이 미그기를 쫓아가서 1대를 격추시키고 다른 1대를 손상시켰습니다. 손상된 미그기는 나중에 격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미그기의 공격에 대비한 표준 전술들을 교육받았습니다. 미그기는 상승 고도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었고 마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우리의 미티어 전투기보다도 20% 정도 유리했습니다. 이것은 공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큰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작전 수행 중이든 4기의 항공기를 운용해 서로를 보호해주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적 전투기들에 대비해서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취지입니다만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AF 호주 공군은 어떻게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까?

JN 미국 공군의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이 호주 77비행대대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77대대는 전투 준비가 된 조종사들과 훈련된 지상인력, 그리고 임무에 적합한 항공기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군력을 투입함으로써 UN군이 밀리고 있던 상황에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호주 공군은 F-51 무스탕 전투기를 운용했는데, 초기에는 B-29 폭격기 등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나중에 지상상황이 급변하자 근접 항공지원 임무도 훌륭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6·25전쟁 당시
미티어 전투기 앞에서
기념촬영한 존 뉴햄 씨(오른쪽)

AF 6·25전쟁이 호주 공군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JN 우리 모두는 전쟁을 통해 귀중한 비행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전의 현실과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은 조종사 개개인은 물론 호주 공군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무를 완수하고 전쟁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룬 가장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둡고 우울한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북한에 지배당했다면, 지금 북한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자동차와 제품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대단한 발전을 보게 되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 6·25전쟁 당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존 뉴햄 씨(왼쪽)



“작별파티 중에 참전한 전쟁...
예상보다 컸던 조종사 희생
공백 메우기 위해
뒤늦게 조종사 양성하기도.”

두 번째로 만난 조종사는 스펜서 시버(Spencer R K Seaver) 씨였다. 본래 공학도였던 그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공군 조종사로 자원입대했다고 한다. 6·25전쟁에서 101번 출격한 그는 전후 전역해 남극탐험에 참여하기도 하고 민간 항공사의 조종교관 등으로 일하다가 지난 1991년에 은퇴했다. 조종사가 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자랑스러워하는 그는 우아한 아름다움과 빼어난 음식 솜씨를 뽐내는 부인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작고 아담한 그의 집에서 진행된 인터뷰 중 시버 부인이 대접해준 따뜻한 홍차와 직접 구운 쿠키의 맛을 취재팀은 잊을 수 없다.

AF 호주 공군의 6·25전쟁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SS 호주는 한국으로 공군을 파병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당시 77비행대대(이하 77대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연합군의 일본 점령과 전후조치를 위해 일본 이와쿠니기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77대대는 1950년에 이미 철수할 준비를 마치고 작별파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별파티에 누군가 뛰어 들어와서는 정부가 77대대의 6·25전쟁 참전을 승인해서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전쟁 초기 몇 주간 조종사들은 아침에 출근하듯이 한국으로 무스탕 전투기를 조종하여 전투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전황이 심각해지자 77대대는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구에 주둔했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포항, 부산, 김포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38선 부근에서 고착화되자 대부분의 시간을 김포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포기지는 국경에서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북한으로 바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억제할 수단이 필요했고 때마침 가까이에 준비가 잘 갖춰진 호주 공군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호주 정부에게 참전을 신속히 요청하였고, 호주 정부가 UN회원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신속히 참전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F 한국에서의 임무는 어땠습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임무가 있으십니까?

SS 우리의 주 임무는 지상공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의 대공공격으로 여러 전투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워낙 고도가 낮았기 때문에 어떤 전투기들은 탈출하기 전에 지상에 추락하기도 했는데 조준경을 계속 들여다보면 방향감각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의 험한 산악지형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지상에 근접한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전투기를 너무 늦게 상승시키다가 산에 추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40명의 조종사가 전사했고, 7명의 조종사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당시 호주 공군은 이 정도의 희생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종사가 부족해지자 그제야 새로운 훈련 과정을 도입하여 조종사 양성을 시작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제가 했던 임무 중에는 원산 일대에서 100여대의 적 트럭을 발견하고 이를 격파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 편대는 트럭들의 선두와 후미를 공격하여 중간에 있는 트럭들이 움직일 수 없게 하였고, 공격과 재급유를 반복하면서 계속 공격했습니다. 미티어 전투기는 1시간 남짓 비행할 수밖에 없어서 자주 재급유를 하고 재출격해야 했습니다.



6·25전쟁 중 임무수행을 마치고 ▶
돌아오는 스펜서 시버 씨(왼쪽 첫 번째)

◀ 6·25전쟁 당시 스펜서 시버 씨의
100회 비행 임무완수를 축하하며
찍은 기념사진(왼쪽)

SPECIAL
THEME
02



AF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휴전 직전이었던 1953년 7월 16일 전사한故 린 맥그린치(Len McGlinchey)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호주 공군의 조종사 마지막 전사자였습니다.

SS 그는 제 전투기를 조종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날 비번이었는데, 갑작스런 임무가 생기자 그가 제 전투기에 탑승했고, 전투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륙 직후 그대로 땅에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각각 자신의 전투기를 전담하여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비번이거나 자신의 전투기가 기동가능한 상태가 아니면 다른 항공기를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애기(愛機)를 'Maid of the Mountains(산골짜기의 처녀, 영국 뮤지컬/영화의 제목)'라고 불렀습니다. 공군 입대 당시 제 집이 산에 위치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이 좋아 살아남은 셈입니다. 그는 전쟁에 늦게 참가하여 대대에 온지 얼마 안 된 대대의 무장담당 장교였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부산 UN군 묘지에 있는 그의 묘지에도 다녀왔었습니다.

AF 6·25전쟁이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S 많은 사람들에게 6·25전쟁이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6·25전쟁이 '알려지지 않은 전쟁(The unknown War)'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언론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황은 무려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신문에 보도됐고 편지를 주고받는 데는 2주일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호주를 떠난 적도 없는 것처럼 대해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6·25 전쟁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호주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UN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한 호주 정부의 결정은 올바른 일이었다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생각할 겁니다. 당시 모든 군인들은 자원하여 참전한 것이었고 자신들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공군 조종사들을 기리며...

자신 대신 전사한 맥그린치의 이야기를 할 때 시버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듯이 보였다. 질문과 별개로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동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의 이야기를 하염없이 이어갔다. 이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6·25전쟁에 참전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그의 손이 다시 보였다. 평범한 주름투성이 노부의 손이 아닌, 63년 전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면서도 조종간을 당겨 대한민국을 지킨 자랑스러운 손으로... **AF**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준 두 호주 공군 참전 조종사에 대한 인터뷰 영상과 다양한 이야기를 인터넷 홈페이지 www.afplay.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호주 공군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호주 공군 미티어 전투기



▲ 임무 브리핑 중인 호주 공군 조종사들

푸른 눈을 가진 의인들

아무런 연고(緣故)가 없는 이역만리의 한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수많은 해외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과 헌신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전쟁 당시 UN군 소속으로 참전한 21개국 모두의 지원에 대하여 경중을 따질 순 없으나,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6·25 전쟁에 참전을 결정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호주이다. 호주는 그 가운데서도 전투기를 포함한 공군력을 파견하였다.

호주 공군은 공식적으로 6·25전쟁 발발 일주일 만인 1950년 7월 2일에 참전하였다. 호주 공군의 제77비행대대(이하 '77대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연방 점령군의 일원으로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호주로 복귀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었다. 77대대는 한국 본토로 향하는 미군 폭격기 엄호 임무를 위해 F-51 무스탕 전투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켰으며, 이에 따라 호주는 미국을 제외한 UN군의 인원 중 6·25전쟁에 참전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 무스탕 전투기에 탑승한 호주 공군
77비행대대장 故 루 스펜스 중령



◀ MiG기와 교전 후 착륙한 호주 공군
미티어 전투기. 기총부에 탄매가 낀
것이 보인다.

“신속하게 파괴하라(Swift to Destroy)”, 77대대의 활약

77대대는 전쟁 초기 미국 폭격기 엄호 임무와 적 지상군을 향한 저고도 공격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했으며, 이후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는 임무로 교량, 철도 등의 파괴 임무에 투입되었다. 호주 공군 조종사들과 무스탕 전투기는 당시 탁월한 임무수행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북한군의 지대공 공격 표적이 되어 작전수행 일주일 만에 첫 번째 희생자를 냈다. 1950년 9월에는 당시 77대대장이었던 루 스펜스(Lou Spence) 중령이 작전 도중 전사하는 등 뼈아픈 희생이 뒤따랐다.

1951년 4월, 중공군이 참전한 직후 출현한 북한의 MiG-15기에 대항하기 위해 77대대는 일본으로 일시 철수하여 기존의 무스탕 전투기를 영국제 미티어(Meteor) 전투기로 전환하였다. 같은 해 7월 한반도로 다시 전개한 77대대는 미국 공군을 비롯한 UN군 부대들과 함께 김포에서 주둔하며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호주 공군은 1954년 10월 12일 한반도에서 철수하기까지 약 4년 동안 1,451명의 병력이 참전하였으며, F-51 전투기와 미티어 전투기로 총 18,872회 출격하여 건물 3,700채, 차량 1,500대, 기관차 및 화차 98대, 철로 65개, 교량 16개를 파괴했다. 또한 당시 미티어 전투기 보다 성능이 더 뛰어났던 적 MiG-15 5대를 격추시키는 등 수많은 전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1952년 11월에는 한국 공군에 F-51 전투기 2대를 기증하여 전력증강이 절실했던 초창기 대한민국 공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눈부신 전과 뒤에는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다. 전쟁기간 동안 호주 공군의 피해는 F-51 13대와 미티어 46대가 손실되었으며, 40여명이 사망하고, 7명이 포로로 붙잡혔다.



호주 공군은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에도 세계 각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였다. 말레이시아 분쟁, 보르네오 분쟁과 베트남 전쟁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동티모르 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에서의 작전수행에 참여하였고,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와의 군사적 중재에도 관여하고 있다.

현재 호주 공군은 90여 대의 F/A-18 전투기를 비롯하여 대잠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수송기, 훈련기 및 헬기 등 총 26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중우세작전, 정밀타격작전, 정보작전, 정찰 및 감시작전 및 공중기동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인도적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정규 병력은 14,000여 명으로 한국 공군의 5분의 1 정도의 규모이며,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군 지원 가능 연령이 17세에서 55세로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의 범위가 매우 넓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군문이 개방되어 있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2

6·25전쟁에 참전한 호주 공군 방문 취재기

글
소령 박운서(홍보과)

사진
중위 김형진(홍보과)



‘전쟁으로 맺어진 끈끈한 인연’ 한국 공군 102전투비행대대 - 호주 공군 77비행대대 교류 현장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6·25전쟁에 파병한 호주 공군의 핵심부대는 제77비행대대(이하 '77대대')였다. 우리 공군은 6·25전쟁 초기에 입은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본격적인 전투 부대로서 편제와 능력을 갖춰나갔는데, 당시 창설된 초창기 비행대대 중 하나가 제12비행대대(이하 '12대대')였다. 1951년 9월에 창설된 12대대는 이후 1953년 2월 제102전투비행대대로 재편되어 현재 제11전투비행단 예하에서 임무수행 중이다. 6·25전쟁에서 12대대는 당시 호주 공군 77대대와 함께 싸운 인연이 있는데, 이때의 인연으로 지금의 102대대와 77대대는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는 102대대 정예 전투조종사 3명(소령 신현인, 소령 최병욱, 대위 이영철)이 호주 공군 윌리엄타운 기지로 초청을 받아 77대대와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취재팀도 그 훈훈했던 현장에 함께 참여해 보았다.



1

호주 뉴캐슬 지역에 위치한 윌리엄타운 기지는 F/A-18(호넷, Hornet)을 비롯해 훈련기, 조기경보기 등의 다양한 기종들을 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호주 공군의 핵심기지다. 취재팀이 기지를 방문했을 때 곳곳에서 다양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안내장교에게 물어보니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F-35A를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 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F-35A가 도입되면 호주 공군에서 윌리엄타운 기지가 차지하는 위상은 더욱 높아질 듯하다.

2

도착하자마자 우리 조종사들을 찾으니 벌써 호주 조종사들과 비행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 조종사들은 호주 공군의 Hawk(호크) 127 훈련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는데 비행 전부터 호주 공군 비행환경과 우리 공군의 다른 비행교육 시스템에 대해 묻고 토론하는 모습이였다.

3

호크기에는 호주 공군다운 캥거루 마크가 선명했다. 후방석에 탑승한 우리 조종사는 취재팀의 카메라를 보자 F-15K 조종사 특유의 포즈를 취해 주었다. 비행을 마친 후 우리 조종사들은 “호주는 공역이 넓고 소음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적어 한국에서 보다 조종사들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4

이튿날 우리 조종사들은 77대대의 주기종인 F/A-18에 탑승할 기회를 가졌다. 77대대 입구에서 대대 마크를 발견했는데 서구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동물이

그려져 있었다. 77대대 조종사들은 이를 ‘사자’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호주 공군 출신의 퇴역 조종사인 데이비드 롭슨(David Robson) 씨의 말에 따르면 “77대대의 마크는 한국 사자(Korean Lion)로서 6·25전쟁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였다.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조종사들이 한국의 전통 사자춤을 우연히 접할 기회가 있었고, 사자탈의 형상에서 영감을 얻어 마크를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77대대의 역사에 6·25 전쟁은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음을 느꼈다.

5 6

우리 조종사들은 전투조종사답게 어제 훈련기 탑승 때보다 세세한 면면까지 관심을 갖고 한국 전투기와 다른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모습이었다. 전투조종사들끼리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법. 실제로 호주 공군 조종사들은 우리 조종사들의 관심에 화답하듯이 땅과 바다가 스칠 듯 아찔한 초저공 비행을 선보이며 기량을 과시했다는 후문이다.

7

대대 곳곳에는 77대대의 역사적 흔적이 가득했다. 조종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에도 어디든 고개만 돌리면 그들의 치열한 비행과 전투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종사들은 시간 날 때마다 항공작전에 대한 다양한 의제들로 77대대 조종사들과 토론

했는데, 호주에서의 뜻깊은 시간들은 유·무형의 성과가 되어 앞으로 우리 조종사들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8

77대대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호주식 바비큐로 준비된 작별파티였다. 한국식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는 술은 없었지만 맛있게 익은 고기와 소시지가 떠나는 발길을 돌리기 아쉽게 했다. 한국과 호주 조종사들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유익했던 호주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내년에 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2

6·25전쟁에 참전한 호주 공군 방문 취재기

글
소령 박운서(홍보과)

사진
중위 김형진(홍보과)



그랜트 버(Grant Burr) 중령은 호주 국방참모대학을 졸업하여 호주 공군 장교로 임관하였다. 주 기종은 F/A-18이며, 캐나다, 이라크, 카타르 등에서 다수의 비행임무를 수행하였다.

제77비행대대장과의 인터뷰

AF 한국 공군 102대대와와의 교류는 언제부터 시작하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GB 2003년부터 102대대와 가까운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도 77대대가 102대대로부터 초청을 받아 3명이 한국에 다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대로 방문한 102대대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무엇보다 77대대가 102대대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공군의 전투비행대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합동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많은 소통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계를 실무자 간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큰 성과였습니다.

AF 한국 공군 전투조종사들에 대한 인상을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GB 예전에 한국 공군 조종사들과 함께 여러 비행훈련을 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항상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항상 그들로부터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AF 6·25전쟁 이후에도 호주 공군은 다른 여러 나라에 파병을 지원하며 국제적으로 활약했는데, 호주 공군이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GB 77비행대대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과 하는 훈련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작전을 수행할 때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동맹국이나 우방국과 함께 싸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훈련해 보지 않는다면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없겠지요. 작전을 경험할수록 항상 새롭게 배우는 것이 있고 이를 통해 각 대대원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AF 마지막으로 한국 공군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GB 저는 6·25전쟁에서부터 시작한 77대대와 102대대와와의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F**



1



2



3



4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6·25전쟁의 역사, 호주국립전쟁기념관

1 2

취재팀은 우리 조종사들과 함께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국립전쟁기념관(Australian War Memorial)을 방문하기 위해 일찍이 윌리엄타운 공군기지에서 캔버라로 가는 수송기에 몸을 실었다. 캔버라 공항에 도착한 후 차로 20여 분을 이동하여 호주국립전쟁기념관 6·25전쟁 참전비를 찾았다. 지면에 곧게 선 철제 기둥 사이로 당시 호주군 참전자들을 형상화한 조각상이 서 있었다. 맑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전비에 흐르는 엄숙함이 일행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우리 조종사들은 전장터에서 전사한 호주 공군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국화꽃 한 다발을 헌정하고,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이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거수경례하였다.

3

호주국립전쟁기념관은 그 규모와 전시 수준이 상당하였다. 전쟁 때 사용되었던 기체와 장비들이 넓은 전시관을 거쳐 유기적으로 진열되어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전이 벌어지는 모습을 현대적 기술로 다시 재현하여 거대한 화면에 상영하고 있었다. 6·25전쟁에서 호주 공군의 활약도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었는데, 특히 당시 호주 공군 77대대 조종사의 조종복, 군복, 기타 장구 및 한국에서 호주로 보낸 공식서한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4

전쟁기념관 초입에서 빨간색의 조화를 팔고 있었는데, 동행한 호주 공군 조종사에게 무엇인지 물어보니 양귀비 꽃(Poppy) 이란다. “호주인에게 이 꽃은 추모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취재팀에게 설명해

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인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 플랑드르 지역, 이 격전지를 찾았던 존 맥클레이(John McCrae) 대령은 전사자들을 임시로 묻었던 무덤 위로 피어난 양귀비 꽃을 보았다. 이는 그로 하여금 ‘플랑드르 전장에서(In Flanders fields)’라는 시를 쓰게 하는 영감을 주었고, 이 시는 국가적 공감대를 얻게 되어 양귀비 꽃이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상징이 되었다. 호주국립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명관 틈새에 무수하게 끼워져 있는 붉은 색 추모의 물결 사이로, 102대대 이영철 대위는 6·25전쟁 당시 산화한 호주 공군 77대대원들의 이름을 손으로 한 명, 한 명 짚어보며 생각에 잠겼다. 얼굴도 피부색도 달랐던 먼 나라 이방인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호주 조종사들의 헌신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3

사상 최초, 한·미·영 공군 연합훈련

글
대위 이상우(홍보과)

사진
원사 김경률(공보과),
하사 김재겸(홍보과)



국제평화를 수호하는
어벤져스 공군이
한반도 상공에서 **뭉치다!**

무적(無敵) : 대적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셸.

2016년 11월, 세계 최상급 공군력을 자랑하는 한국, 미국, 영국 공군이 사상 최초로 한반도 상공에서 공중전투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명은 '무적의 방패(Invincible Shield)', 훈련 이름만으로도 강력한 아우라(aura)를 내뿜는 이번 훈련은 대한민국 공군 F-15K, KF-16 전투기와 함께 미국 공군 F-16 전투기, 그리고 영국왕립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참가해 11월 4일(금)부터 10일(목)까지 오산 공군기지에서 진행되었다.



‘타이푼’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뿐더러, 우리 공군이 미국 이외의 국가와 국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도 처음이다. 영국의 이번 훈련 참여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안보 기여를 통해 세계질서 및 국제체제 유지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영국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11월 5일(토),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왕립공군 제2대대 유로파이터 타이푼 4대가 오산기지에 도착했으며, 영국 공군 장병 200여 명과 C-17 수송기, A330 MRTT 공중급유기도 함께 참가했다. 이번 훈련에서 영국 공군은 가상 적기의 공중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제공 임무를 수행하고, 한·미 공군은 모의 무장 시스템으로 가상 적의 주요 표적을 타격하는 항공차단 임무를 실시하여 유사시 한반도 영공의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하는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타국 공군과의 이와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은 각국 전투기종과 무기체계 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전술전기를 연마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1월 8일(화)에는 한·미·영 공군 전투기 4대의 혼합 편대가 ‘무적의 방패’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듯, 강인한 위용을 떨치며 저공비행으로 오산기지 상공을 가로질렀다. 우리 공군의 F-15K를 선두로 왼쪽에는 영국 공군의 타이푼이, 오른쪽에는 미국 공군의 F-16 2대가 함께 비행하는 모습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의 굳건한 동맹과 군사협력 관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에는 대한민국 공군작전사령관 원인철 중장과 미 7공군사령관 토마스 버거슨 중장, 영국왕립공군 참모총장 스티븐 힐리어 대장이 성명을 발표했다.

원인철 중장은 “이번 훈련은 연합항공작전능력 향상은 물론 영국 공군과의 군사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토마스 버거슨 중장은 “한반도를 수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및 영국 공군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스티븐 힐리어 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과 영국왕립공군 간의 관계가 발전할 것이며 우호 및 협력을 증진하는 양국 공군의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영국왕립공군 제2비행대대장 로저 엘리엇(Roger Elliott) 중령 훈련 참가 소감



이번 한·미·영 연합훈련에 참여한 영국왕립공군 제2비행대대는 스코틀랜드 로시머스(Lossiemouth)에 위치해 있으며, 5개의 최전선 타이푼 부대 중 하나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영국 공군 4대의 전투기와 지원 장비들을 한반도까지 전개하는 과정은 대단한 임무였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매우 현대적인 전력과 잘 훈련된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공군력과 더불어 미군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연합훈련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여기 다시 올 수 있는 기회와 대한민국 공군이 스코틀랜드로 오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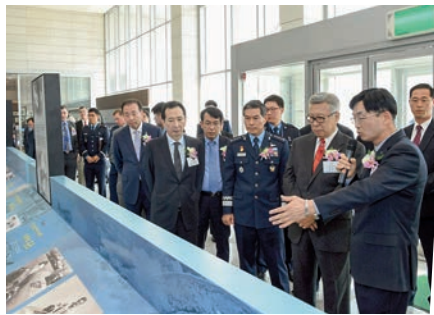
RF-16 대북 정찰비행

참모총장은 11월 10일(목), 북한의 5차 핵실험·미사일 발사 감행 등에 따른 군사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대북 감시 정찰임무를 담당하는 RF-16 항공기에 탑승하여 지휘비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참모총장은 대북 정찰비행을 마치고 임무 조종사들에게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한 가운데, 적의 어떠한 도발 징후도 즉시 포착하여 최단시간 내에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대북 감시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외국 공군참모총장(사령관) 접견

참모총장은 공군본부에서 11월 1일(화) 미국 공군참모총장 데이비드 골드핀 대장, 8일(화) 영국 공군참모총장 스티븐 힐리어 대장, 14일(월) 스리랑카 공군사령관 카필라 자얏파티 중장을 접견하여 각국 공군과의 우호 증진 및 군사교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습니다.



📷 제3회 공군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참모총장은 11월 9일(수), '6·25 전쟁에서 공군력이 갖는 전쟁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공군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사상 최대의 항공전이었던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과 UN 참전국 공군력의 역할과 전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아울러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



December 2016 www.airforce.mil.kr



작사, 영주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

작전사령부는 11월 9일(수) 영주 비상활주로에서 유사시 항공작전 지원능력 검증을 위한 기종별 이·착륙 훈련을 실시하였다.



교육사, 제3회 항공장구관리사 국가자격검정

교육사령부는 11월 1일(화)부터 11일(금)까지 국방 분야 국가자격검정인 '제3회 항공장구관리사 검정'을 시행하였다.



공중기동사, 항공추진보급기지(ATSP) 전개 훈련

공중기동정찰사령부는 10월 30일(일)부터 11월 4일(금)까지 강릉기지에서 항공추진보급기지(ATSP)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전개 훈련을 실시하였다.



3훈비, 야간 기지방호 훈련

제3훈련비행단은 11월 2일(수) 전시 기지생존성 확보 및 방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화생방 방호, 기지경계, 대공 방호 등 실전적 '야간 기지방호 훈련'을 실시하였다.



5비, '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참석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11월 11일(금) 부산 UN기념공원에서 실시된 '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에 참석해 묵념을 올리며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령을 추모하였다.



8전비, 군·관 합동 유류 누출 확산방지 훈련

제8전투비행단은 11월 3일(목) 원주시청,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류 누출 상황을 가정한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였다.



10전비, 경기남부경찰청 보안협력위원 견학 지원

제10전투비행단은 11월 8일(화) 경기남부경찰청 보안협력위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관 함양을 위한 안보현장 견학을 지원하였다.



11전비, 차량 정비능력 경연대회

제11전투비행단은 11월 10일(목) 부대 군 차량 정비요원의 업무기량 향상 및 혹한기 대비 수송 지원태세 확립을 위한 '차량 정비능력 경연대회'를 실시하였다.



16전비, 지역 농가 대민지원

제16전투비행단은 11월 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가을철 일손이 부족한 부대 인근 지역 농가를 방문하여 대민지원 활동을 실시하였다.



19전비, 비행단 1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제19전투비행단은 11월 2일(수) 비행단 1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하고 3일(목)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축하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기록은 2007년 2월부터 9년 9개월 여에 걸쳐 수립된 기록이다.



20전비, 제7회 공군 조리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제20전투비행단은 11월 11일(금) 개최된 '제7회 공군 조리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6전대, 전투생환 및 산악구조훈련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10월 31일(월)부터 11월 4일(금)까지 강원도 영월 일대에서 항공구조사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투생환 및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AF**



: 응답하라! 대한민국 공군!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변변한 전술기를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공군 - 총병력 1,897명, 조종사 100여 명, 경향공기 22대(L-4 8대, L-5 4대, T-6 10대) - 는 험난한 시련을 건디어 이겨냈고, 휴전협정을 체결한 1953년 7월 말에 어엿한 공군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6·25전쟁 기간 중 한국 공군은 어려운 전장 환경 속에서도 '전쟁 승리를 위한 항공작전 수행'과 '항공작전 수행을 위한 조종사 전력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6·25전쟁에서 한국 공군의 전투조종사들은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하였고, 항공기 정비사 등 작전 지원요원들은 전투 출격의 성공과 조종사의 안전한 귀환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6·25전쟁에서 한국 공군과 UN공군이 보여준 성과는 실로 위대했으며,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 승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낙동강 전투에서 기록한 전과 중 병력 47%, 화포 72%, 탱크 75%, 트럭 81%를 공군력에 의해 격멸하였다.

'승호리철교 차단작전(1952. 1. 15.)'은 전쟁기간 중 한국 공군이 이루어낸 수많은 전공 중의 하나이지만, 'One for All, All for One(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한다.)'의 의미가 담겨진 항공작전이었다. 승호리 철교는 만주에서 평양까지 운송된 인민군의 군수물자들을 서부전선과 중동부전선으로 공급하는 적군 후방보급로의 요충지였는데, 조밀한 대공포화망 때문에 미 공군도 수많은 출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괴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승호리철교 차단작전'은 우리 공군에게 인계되었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모험적인 방법이었던 초저고도 급강하 공격 - 1,200m(4,000ft) 상공에서 급강하한 후, 고도 450m(1,500ft) 상공에서 폭탄투하와 로켓공격 - 을 시도하여 임무를 성공시켰다. 이와 같은 업적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임무 완수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사로 투혼 했던 전투조종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항공우주군 시대 정예 공군으로 영공방위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은 현재 동북아 최강 전투기인 F-15K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도입과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엔 철저히 응징할 수 있는 최첨단 정밀유도 무기체계를 전력화하였다.

이제 남은 몫은 대한민국 공군이고, 그 해답은 '승호리 정신'이다. 북한은 4차, 5차 핵실험에 이어 보란 듯이 SLBM 시험발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그리고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 등의 군사적 도발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적 긴장상황 속에서 공군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필수적 요소로 간주된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이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공군은 현대전의 핵심전력으로서 '최소한의 자산으로, 최대한의 국가 안보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스 신화 '역사의 신 클리오(Clio)'가 미소 지으며, 손짓으로 공군을 부르고 있다. '승호리 정신'으로 하나가 된 대한민국 공군이 줄리오 두헤(항공전략 이론가)가 예견한 전쟁과 안보조직의 신데렐라가 되는 그 날이 곧 오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AF**





공군 IN
조인, 조인!

글
기은혁(공감기자 1기)



취재지원
대위 이상우(홍보과)

사진
하사 김재겸(홍보과)



본격, 공군인 자긍심 충전 프로젝트!
빛나는 공군 예비역 다 모여라!!

조인, 조인!

鳥人

제7화 스타트업 회사 '어반베이스'

“공군의 인연으로 시작된 그들의 만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
공군 예비역 장교 4명이 공동창업한 스타트업(창업) 회사
'어반베이스(Urbanbase)'

프로로그 : 웃기만 스쳐도 인연, 손길만 닿아도 열정

최근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와 기기들이 개발되며 우리 삶 속에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다. 2014년 6월 설립된 '어반베이스'라는 신생 회사가 있는데, 2D 건축도면을 3D로 변환해서 가상현실(VR)화 하는 것을 핵심기술 기반으로 홈퍼니싱(Home Furnishing, 가구나 조명 등의 소품으로 집안을 꾸미는 것)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월 전투기에 달려있는 'HUD(Head Up Display)'라는 이름의 개인회사로 출발한 이 회사는 2016년 2월, 도시라는 뜻의 '어반(Urban)'과 공군기지를 뜻 하는 '베이스(Base)'를 합성해 '어반베이스'라는 주식회사로 발전했다. 회사 명칭에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이 공군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이 회사를 설립한 공동창업자 4명은 모두 공군 예비역 장교들이다. 이번 달 '조인 조인' 코너에서는 공군에서의 특별한 만남으로 시작해 생사고락을 함께할 동반자가 된 하진우(학사 117), 김덕중(공사54), 오세준(학사117), 이경우(학사117) 공동창립자를 만나봤다.

1. 어떤 계기로 '어반베이스'를 창업하게 되었나요?

- 진우 : 원래 넷에서 군에 있을 때 맥주 한 잔 하면서 전역하고 뭐 할까, 뭐 먹고 살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사이였어요. 전역하고 얼마걸

에 다들 좋다는 기업 지원해서 생활하는데 그 화두가 안 변하는 거예요. 전역하면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는데 회사 생활이 군 생활이랑 크게 다른 게 없어서 우리만의 창의적인 일을 해보자 생각했어요. 커피숍 등 창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제가 먼저 전공 분야랑 결부시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창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분들도 한 두 분씩 사표를 쓰면서 합류하게 됐어요.

2. 공동창업자 네 분 모두 공군 예비역 장교이신데 네 분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 세준 : 처음 인연은 훈련소에서 시작됐죠. 저랑 진우님(여기 회사에서는 이름 뒤에 '님'을 붙여 호칭을 했다.), 경우님은 같은 학사 117기 동기였어요. 공통적으로는 당시 훈련단 전술학 교관이었던 덕중님을 만나면서 호된 훈련소 시절을 함께 보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넷이 지구상에서 한 곳에 있던 시간과 장소는 2006년 9월 진주 교육사령부네요. 가끔씩 후보생 때 사진을 보면 덕중님은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고 우리 셋은 얼어있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공군사관학교로 자대 배치를 받고 진우님이 바로 왔어요. 장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때 그 빨간 모자(덕중)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악마'도 여기에 전입 왔구나 생각을 했고 평범한 선·후배 관계로 지냈어요. 군 생활까지의 관계는 거기서 끝나고 전역 후에 다 같이 사석에서 만나게 됐어요. 다시 만났을 때는 그 무섭고 차갑던 덕중님이 형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어색하더라고요.(웃음)

이름 : 김덕중
직책 : COO(최고운영책임자)
기수(특기) : 공사 54기(교육)
창업 전 경력 : 삼성디스플레이
좌우명 :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름 : 하진우
직책 : CEO(최고경영책임자)
기수(특기) : 학사 117기(교육)
창업 전 경력 : 서울건축 건축가/연구원
좌우명 : 늘 스스로에게 일이 되도록 하자!

이름 : 이경우
직책 : CTO(최고기술책임자)
기수(특기) : 학사 117기(교육)
창업 전 경력 : 부산대대학원 디지털건축연구소
좌우명 : 인간은 상대적인 의미를 얻으며 존재한다.

이름 : 오세준
직책 : CSO(최고전략책임자)
기수(특기) : 학사 117기(정훈)
창업 전 경력 : SK텔레콤
좌우명 : 이 정도만 하면 육먹을 일 없겠다 정도로 열심히!



3. 이 회사를 창업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난관을 극복했는지요?

- 진우 : 어린 나이에 창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친구 오피스텔을 빌려 프리랜서로 시작했는데 돈 모으는 일부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부 지원 사업이 됐고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큰 돈을 벌수는 없었으니 결국 지원이나 투자를 많이 받으려 했어요. 서비스 사업은 유저와 함께 발전시킬 수 있어서 2~3개월이면 금방 커지

지만 저희 같은 기술기반 사업은 빨라야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금전적인 부분이 어려웠어요.



- 덕중 : 처음 회사를 운영할 때 저희들 식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6개월 동안 점심, 저녁을 다 라면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4.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다른데 취직할까 하는 유혹도 있었을 텐데요.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 진우 : 솔직히 포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창피하잖아요. ‘도전’ 또는 ‘의지’ 이런 현란한 표현보다는 포기하는 순간 뒤로 물러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자랑도 많이 하고 꿈이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포기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훈련소 행군하면서 정말 큰 거 하나를 배웠어요. 행군이 너무 힘들어서 봉우리 목적지를 바라봤는데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아예 땅만 보고 계속 걸다 보니 어느 순간 고지가 가까이 오고, 또 뒤에 돌아온 길을 보니깐 내가 완전 군장하고 이 먼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보람에 다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때의 교훈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적용되는 거 같아요.

5.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 진우 : 홍콩에서 저희 사업 계획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긴장을 해서 발표 당일 편의점에서 보드카를 원 샷 하고 발표장에 들어가서 발표했어요. 결과는 최고였어요. 다들 약 먹은 거 아니냐면서 다음부터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보드카 마시라고 놀리곤 합니다.

6. ‘어반베이스’만의 특별함과 강점은 무엇인가요?

- 진우 : 조직력이 탄탄해요. 신생기업이라서 그런지 저희 마인드가 공통점이 많아요. 기술이나 인력보다도 조직 자체가 탄탄하고 유기적으로 잘

소통할 수 있는 관계부터 만들자는 생각이예요. 저희가 함께 하게 된 이 유이기도 하고요. 그런 탄탄한 관계를 갖췄기 때문에 세계 최고로 뛰어나지는 않지만 자기 분야에 충실한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희 전체를 만들었어요.

- 세준 : 그리고 보니깐 공군의 4대 핵심가치(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가 녹아있는 기업이네요(웃음)

7. ‘어반베이스’가 생각하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산업 또는 4차 산업이란?

-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세상은 가상현실이 점점 인류의 삶 속에 녹아들어올 것이라 생각해요. 지금 하고 있는 3D 콘텐츠 개발을 마쳐서 이걸 VR로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가구배치뿐만 아니라 안에 아바타를 넣으면 원격으로 가상공간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해도 주소를 불러주면 서로 만나서 탁구도 치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영화 ‘매트릭스’같은 삶이에요.

8. ‘어반베이스’의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진우 : 현재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 이 방 하나만 칠하고 싶는데 페인트 몇 통이야 할지 모를 때 저희 기술은 전부 벡터 데이터다 보니깐 면적과 물량 산출이 용이해요. 갖고 있는 제품이 나 신제품이 주변과 잘 어울릴지도 직접 넣어봄으로써 알 수 있어요.

- 덕중 : 요새는 모델하우스들도 실제로 짓지 않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넘어가는 추세인데요. 실 사용자들이 컴퓨터로 접속해서 둘러보는 게 가능해요. 도면만 있으면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단지도 조성할 수 있어요. 데이터 값만 잘 이용하면 군부대를 새롭게 만드는 것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9. 공군에서의 군 복무 생활이 회사 창업이나 경영에 있어 이런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 진우 : 공군을 안 갔으면 다른 길을 살았을 거 같아요. 제 아내도 종종 이야기하는 게 당신이 공군 장교 그 기수로 안 갔으면 지금 이런 동료들을 얻지 못 했을 것이라고, 운명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인연



김덕중(맨 왼쪽)



왼쪽 오세준, 오른쪽 하진우



이경우(가운데)



도 인연이지만 공군에서 일의 기본을 잘 배웠어요. 복무 시절 부서장님이 문서작성 기본에 대해 잘 가르쳐 주셨고, 다양한 경험뿐만 아니라 개념도 배운 거 같아요.

- 덕중 : 군 복무 할 때는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지 생각했는데요, 전역하고 나서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기업에서도 일 해봤지만 공군에서 경험한 그 시스템이 완벽에 가깝게 구축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구조 자체가 창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된 거 같아요.



- 세준 : 공군 장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10대부터 했어요. 집안사람 대부분이 공군 출신이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선택했죠. 저는 학사장교를 3수 끝에 붙어서 성취감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거 같네요. 3년 되돌아보니 좋았던 기억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 정화됐어요.

- 경우 : 결과물을 발전시키고 꽃을 피울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좋은 경험들이었어요. 3년 이상 조직에 몸담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짧은 시간이 아닌데 좋은 환경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10. 최근 젊은 세대들의 창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역 후에 창업을 꿈꾸고 있는 공군 장병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진우 : 고기도 뜨거울 때 먹어야 가장 맛있잖아요? 열정도 가득 찰 때 저지르는 게 가장 좋아요. 열정은 식게 돼 있습니다. 열정이 오는 시기에 일을 저질러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로서 딱 2번 온다고 생각해요. 전역했을 때와 결혼을 갖 했을 때,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 같고 초인이 된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병사 분들도 대학에 바로 복학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라는 게 실전적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나마 위험이 적을 때 자기가 감당할 정도의 위험을 담보로 도전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거 같아요.

- 세준 : 저는 청개구리 삶을 살아왔는데요. 남들이 하는 거 안 하고, 안 하는 거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취업이나 창업 모두 타이밍이 있어요. 남들 다 한다고 내가 안 하면 패자가 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거 같은 생각, 그런 생각보다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좋은 거 같습니다.

- 경우 : 가끔 군에서의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회상될 때가 많아요. 뭔가를 새로 일군다는 건 없는 미래를 억지로 만들어 낸다는 불안과의 싸움이예요. 지금을 제일 즐기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훈련이 필요한 거 같아요. 공군에서의 시간은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즐겁게 보내고 자기가 역할이라는 것을 계속 가다듬으며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물들을 얻어 갈 거예요.

- 덕중 : 창업에 대한 소식을 보면 대다수는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을 느끼지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어요. 고민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차라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11. 앞으로 '어반베이스'의 향후 계획,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 세준 : 공군 제2전투비행단을 어반베이스 서비스로 만들어보고 싶네요. 하하(웃음)

- 진우 : 우리 회사의 구체적인 상은 마음껏 실험하고 창의력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창의력이잖아요. 창의력은 컴퓨터가 따라할 수 없는 인간의 성역이고, 결국은 이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면 가상현실 속에서 뭐든 잘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12. 끝으로 공군 장병들과 공군지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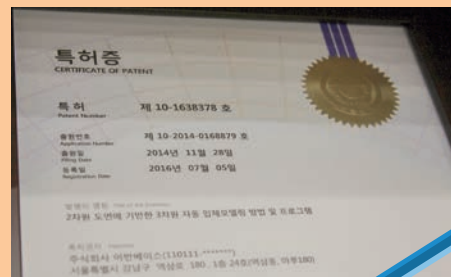


- 경우 : 군 생활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 만난 선배님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자신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좋은 경험이에요.

- 진우 :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군 생활, 그때 만났던 한 분, 한 분 다 그림고 찾아뵙고 싶었는데 '월간공군'을 통해 제 소식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설레네요. 늘 잊지 않고 사회에서도 기억하고 잘 살고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 덕중 : 몸이 최고입니다. 생도 때부터 9년간 공군에 몸담았지만, 자기 몸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군대에서의 생활이 곧 사회의 시작입니다.

- 세준 : 군에서의 생활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좋은 기억이냐는 본인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현재에 충실하면 아름다운 미래 밝은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지원한 공군 생활인만큼 열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한 군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AF**



어반베이스는?

어반베이스는 2D 도면을 이용하여 2초 만에 3D 모델로 변환되는 인공지능 자동 모델링 기술을 기반으로 홈퍼니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술은 국내 최초로 어반베이스에서 개발했으며, 현재 국내와 국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어반베이스는 2014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확인기업'에 선정되었고,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유망중소기업 'K-Global 300'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 7월 독자 개발 기술을 토대로 베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 공동창업자 4명과 7명의 직원으로 총 11명이 운영 중이다.



서기욱진(23세)

병 748기

단거리대공 무기 운용

2015. 1. 19.

(입대곡 : 여간친구 - 우리 가족)

공군에 들어온 계기는?

주위 선배들 중 공군 출신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선배들에게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병영 문화 그리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공군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후 면접과정을 거쳐 뽑히기에 더욱 자부심을 갖고 군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기본 임무로 저고도 단거리 대공방어, 지상화력 지원 등입니다. 이외에도 ADEX를 비롯한 각종 전시 행사와 부대 견학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대대 병사들에게 인정받아 으뜸병사로 선출되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으뜸병사로서 개인 보다는 전체를 생각해 보는 기회였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올 봄에 양평으로 영어마을 교육 파견을 갔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타 부대 공군 및 육군 전우들과 함께 원어민 강사와 회화 교육을 받고 영어로 공연도 함께 제작했는데 군 생활 중 가장 특별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임차에게 한마디

장호중 일병은 성격이 차분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후임이라 부대 적응 및 임무 수행에 있어 그 누구보다 잘해 내리라 믿습니다. 특히 제15특수임무비행단 대공방어대는 부여된 임무가 더욱 많고 중요하기에 건강히 전역하는 그 날까지 자부심을 갖고 군복무 하면 좋겠습니다. 제15대공방어대 파이팅!



신.고.함.니.라

장훈중 (201세)

병 766기

단거리대공 무기 운용

2016. 7. 18.

(입대 특: 여지친 작 - 너 그 그 너)

공군에 들어온 계기는?

공군은 신사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복무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특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복무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할뿐만 아니라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 중 목표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태해지지 않고 일과 후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꾸준히 전공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후임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공방어대 업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군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임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공방어대 소속 병사로서 열심히 배워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영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역자에게 한마디

으뜸병사로서 항상 대공방어대를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배운 것들을 잘 실천해서 나중에 후임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회에서도 기쁜 일들이 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역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F



공군 IN

공군이 되는 9가지 방법 : 공군장학생 편

글
진재훈(공감기자 1기)
취재지원
대위 이상우(홍보과)



저 하늘에 꿈을 펼칠 당신의 청춘을 응원하는 공감팀의 특급 지침서!

공군이 되는 9가지 방법!

- 제6화 공군장학생 -



#1. 군장학생이란?

군장학생(軍獎學生)은 학부에 재학 도중 군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대학교 수학기간 중 생활비 명목의 군장학금을 지원받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 만큼 장교로서 복무하게 되는 초·중급 지휘관 양성제도입니다. 공군과 더불어 육·해군과 해병대에도 있는 모집제도입니다. 군장학생들은 대학교 재학 중에는 군사교육을 받지 않고, 졸업 이후에는 각 군의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에 소위로 임관하여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조종, 정보통신, 군의장학생 세 분야에서 공군장학생을 모집합니다.

#2. 공군조종장학생

공군조종장학생은 공군에서 조종사, 즉 조종 특기 장교를 양성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공군 조종사는 전투기·수송기 등의 항공기를 직접 운용하며 최전선(最前線)에서 적들과 직접 맞서 싸우는 핵심 전력입니다. 때문에 충분한 수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군은 다양한 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종장학생이 그 중 하나입니다. 공군조종장학생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정모집대학 조종장학생]이 있습니다. 우수한 조종장학생의 안정적인 획득을 위하여 학(學)·군(軍) 간의 협약에 의해 지정모집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면 이들에게 군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나 영남대 자율전공학부가 대입전형에서 조종장학생을 따로 뽑습니다. 수시(10월)와 정시(1월)에서 각각 모집하며 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인 자들 중 공군전형 통과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군학군단 설치대학 항공운항학과 조종장학생]이 있습니다. 공군학군단이 설치된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항공운항학과에 진학 중인 1~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은 3학년 때 공군학군단(ROTC)으로 자동편입하게 되어 졸업 후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 조종장학생]이 있습니다. 국내 4년제 정규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1, 2, 3, 4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전국경쟁을 거쳐 선발하며,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지원 시기는 매년 4월 경이며, 임관일 기준 만 20~27세의 남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부생들이 다른 진로를 탐색하다 뒤늦게 조종사가 될 수도 있기에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지정모집대학 전형일정

-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과 / 영남대학교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

구 분		일 정		내 용
		수 시	정 시	
원서접수		9월 초	12월 말	대학별 입시요강 참조
1차 합격자 발표		10월 초	1월 초	성적 순 3배수 선발
조종장학생공군전형	정밀신검	10월 중	1월 초	공군 공중근무자 1급 기준
	면접	10월 중	1월 초	희생정신, 지원동기 등
	적성검사			비행적성검사, 모의비행검사
	체력검정			1,5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신원조회	10~11월 중	1월 중	결격사유 검증
합격자 발표		12월 초	2월 초	

공군학군단 설치대학 / 일반대학 전형일정(매년 다름)

지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1차 전형 (필기시험)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2차 전형 (정밀신검, 면접, 적성검사, 체력검정)	최종 합격
4월	5월 경	6월 경	6~7월 경	9월 경

공군학군단 설치대학 및 일반대학 조종장학생 선발의 경우 1차 전형은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는데, 인지능력평가와 상황판단평가로 구성된 간부선발도구(KIDA)와 영어 및 한국사가 있습니다. 영어는 공인영어점수로 대체하고, 한국사 과목은 근현대사까지를 시험범위로 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한국사능력검정 성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시험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2차 전형으로 신체검사, 조종적성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1·2차 전형 및 대학교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합격한 학생들은 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한민국 공군의 조종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3. 공군정보통신장학생

공군정보통신장학생은 대한민국 공군이 ICT(정보통신기술)에 특화된 계약학과를 민간대학에 설치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중장기 복무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가 바로 그 학과인데요. 이 학과에 합격한 신입생은 이후 4년간 공군으로부터 군장학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정보통신분야 관련 특기를 부여받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공군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선발은 수시(10월)와 정시(1월)로 이루어지며 성적은 고교 내신 또는 수능 최저등급 기준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의 합이 7등급 이내이어야 합니다. 1차 선발은 아주대에서 성적순으로 5배수를 추천하고, 2차 전형(공군전형)은 공군에서 신체검사, 체력검정 및 면접을 보게 됩니다. 최종선발은 공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선발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임관한 장교는 의무복무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4년)을 더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각 전형별 모집방법이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연도 대학 입시요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수시모집 전형방법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인원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배수
		서류평가	면접평가	기 타	
20명	1단계	100%	-	-	3배수
	2단계	50%	50%	신체검사, 체력검정, 신원조사 (적·부 평가)	최종선발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정시모집 전형방법 (수능위주)

모집인원	사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선발배수
		수능	면접평가	기 타	
10명	일괄합산	80%	-	-	5배수
		20%	20%	신체검사, 체력검정, 신원조사 (적·부 평가)	최종선발



#4. 공군군의장학생

공군군의장학생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공군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아 공부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 만큼 공군소속의 군의관으로서 복무하는 공군군의관 양성제도입니다. 의과대학의 의예과 1·2학년 및 의학과 1학년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자격은 임관일(의학과 졸업연도 4월) 기준 만 29세 이하의 남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모집하여 1·2차 전형과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다만 대학 전 학년

성적이 백분율로 환산하여 70/100이 넘어야 한다고 하네요. 1차 전형에서는 서류를 심사하는 서류전형이고, 이에 합격한 자는 영관급 군의장교 3명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의 면접을 받는 2차 전형을 치룹니다. 면접에서는 인성과 지원동기 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2차 전형을 통과하면 기무사의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 선발심사에 이르는데, 이 단계에서는 의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6명의 군의장학생 최종선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공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일정

구분	지원서류 접수	1차 전형 (서류 전형)	2차 전형 신검/면접	신원조사	최종 선발심사
기간	11월	12월	12월	12월	2월
세부내용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비행단급 의무부대	기무사 실시	심사위원회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군에서 모집하는 공군장학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첨단과학 기술군을 지향하는 공군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를 장교로 모집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군장학생은 국가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졸업 후에는 공군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엘리트 공군 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고민해보시기 바라며, 대한민국 공군은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F**



그놈은 부자다. 또 잘생겼다. 그래서 인기가 많다. 시작부터 인생다 산 것 같은 이야기를 지껄이는 나도 참 머저리 같지만, 사실은 사실이란 거다. 그놈은(앞으로 머저리라고 칭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머저리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든 놈이니까.) 머저리는 인상적이게도 여자친구가 많지 않았다. 왜, 주변에 많지 않은가. 흰칠하고 괜찮은데 별로 매력 없는 친구. 개가 딱 그랬다. 그래서 머저리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SNS에 대문짝만한 연애 중 게시물을 띄웠을 때 드디어 녀석이 금전적인 힘으로 여자를 쟁취했다는 불순한 생각이 든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그에게 큰 매력은 느끼지 못했으므로 어찌면 당연한 추리라 하겠다.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다. 엄청 예뻐지만 별로 부럽지 않았다. 진짜다.

근데 이번엔 느낌이 좀 달랐다. 여자친구 측의 엄청난 구애라고 했다. 결혼을 보낼 정도로, 나는 머저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에 가서 하라고 면박을 주었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머저리 핸드폰과 SNS에 입을 다물었다. 말꼬리마다 녀석이 갖다 때려 박는 하트는 역겨웠지만 거짓말은 아닌듯했다. 나는 핫김에 요즘 스마트폰에 앱들이 많이 생겼다는데 네가 죽여주는 상품을 개발한 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그러나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꺾꺾거리며 ‘그래, 네 말이 맞다라며 웃어넘겼다. 그 반응은,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그의 말이 사실이란 증거였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믿게 된 이유는 녀석이 여자 친구랑 같이 술을 먹는다고 했을 때였다. 술을! 개 같은 자식.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머저리네 집은 꽤 부자이다. 사실 우리 동네가 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 부유한 동네인데, 놈의 집은 그중에서도 최고를 찍는 집안이었다. 서울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심지어는 하와이에도 집이 있다고 했다. 아버지는 호주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였고, 머저리는 서른도 안 된 나이에 자가용이 두 대나 있었다. 한 대는 망할 놈의 벤츠였다. 튼.

하지만 그런 머저리의 집안에도 힘든 일은 있었다. 나와 머저리가 중학생일 때, 머저리의 집안은 우리 집보다도 가난했다. 학교가 끝나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일감을 찾았고 우리 집에서 잡일도 몇 번 했었다. 엄마는 녀석에게 힘내라며 만 원짜리 몇 장을 쥐여주곤 했다. 학교에서 한창 꿈이 뭐냐며 선생님이 물어볼 때, 그는 힘없이 빗 없이 사는 거라고 말했었다. 나는 늘 그랬듯이 멍청한 놈이라며 놀렸다. 그다음은 몇 대 때렸다. 나도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답답함이었으리라. 말하기 부끄럽지만, 나는 좀 놀던 불량한 놈이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의 난 걱려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어린애였다. “얼간이 새끼야. 하고 싶은 것도 없냐?” 머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니네 아빠 따라다니는 사채업자라도 하던지.” 그리고 나는 녀석한테 먼지 날릴 정도로 맞았다. 머저리는 싸움도 잘하는 놈이었고 나는 싸움도 못하는 불량아였다. 세상은 이렇게도 불공평하다. 다음 날, 머저리는 잡지 한 권을 나에게 내밀었다. 프라모텔을 만드는 회사가 내는 잡지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의 방에는 늘 이런저런 모형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물론 나는 늘 애 같다고 놀렸다. 며칠 뒤에 그는 프라모텔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다고 실토했다. 뒷머리를 긁적이며 바보같이 말하는 그를 나는 당연히 놀렸다. 그리고 녀석의 생일날, 용돈을 탈탈 털어 손에 다 못 들 정도로 프라모텔을 사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친해졌다. 사실 어떻게 친해졌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포장은 해두는 게 좋을듯 싶다. 사내놈들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머저리와 나는 같은 고등학교를 갔다. 다행히 그쯤에는 녀석의 아버지가 빚을 대부분 갚았을 때였고 비로소 그가 사람다운 물골을 조금

갖추었다. 그러자 잘생겨졌다. 나는 그냥 가난했을 때가 나을 뻔 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중이었다. 평소처럼 머저리는 공책에 그림을 끄적이고 있었고, 나는 나름대로 불량아 딱지를 떼기 위해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담임이 교실로 뛰어들어 오더니 머저리를 끌고 나갔다. 나는 그러려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지만, 머저리는 하루 종일 교실로 들어오지 않았다. 담임에게 그의 행방을 물었더니 병원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머저리의 아버지가 쓰러진 것이었다. 간이 문제였다. 이런저런 사회생활에 동분서주하던 머저리의 아버지네 간이 말썽이었다. 녀석의 아버지는 하루에 세 시간 남짓 주무시다가 저녁에 간신히 정신만 차릴 정도로 취해서 돌아와 또 세 시간을 자고 일하러 나가셨다. 머저리 집안의 회복은 거저 얻은 것이 절대 아니었다. 모든 아버지의 행동이 그렇듯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이 악물고 얻어진 승리의 대가였다. 그리고 그다음날, 의사는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이식대상은 머저리였다. 녀석은 의사가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도 전에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간을 떼어 드리겠다고 했다. 지가 무슨 용왕 앞의 토끼도 아니고, 대책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녀석은 다행이라며 내 앞에서 평평 울었다. 나는 그 잘생긴 얼굴이 못생겨지는 순간을 즐겼다. 아마 내가 그 때 함께 울었던 이유는 무척 즐거워서였을 것이다. 아님 말고, 긴 기다림 끝에 간 이식수술은 잘 끝났다. 머저리는 내가 사온 죽을 먹었다. 나는 간이 약하다며 소금을 찾는 녀석의 머리통을 탁 때렸다. “간은 내가 약하지. 멍청아.” 그러자 머저리는 밥풀을 튀기며 웃으며 물었다. “넌 술 먹어 봤냐?” 나는 웬지 분해서 먹어봤다고 했다. 이런 쓸데없는 거라도 머저리를 이겨야지. “그래 쪼다야.” “아쉽고만.” 여전히 죽을 먹는 녀석이 말했다. “나도 먹어볼걸 그랬어.” “먹으면 되잖아?” 머저리는 조금 불쌍하게 웃었다. 토끼가 용왕에게 간을 뺏긴 다음에나 지을 법한 미소였다. “난 이제 평생 술 못 먹는대.” 나는 잠시 할 말을 찾았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 되는대로 지껄었다. “너 상상임신이라고 들어봤냐?” 머저리가 배를 잡고 웃었다. 눈치는 빠른 녀석이었다. “까짓거, 상상음주라고 못하겠냐?” 나는 쿵쿵거리며 웃었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웃었다. 간호사가 무슨 일인가 놀라서 찾아왔지만 간이 모자란 머저리와 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리라. 조금만 더 오래 웃었다면 간호사는 우릴 정신 병원에 넣었을 것이다. 아쉽다. 재미있었을텐데.

우리는 서울로 대학을 갔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머저리 같은 놈들을 학교에서 더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여튼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로망을 품었다. 머저리는 디자인학과에 들어갔는데, 예쁜 여자들이 천지인 곳에서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 이상하게 여자들은 술 안 먹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건 분명 머저리가 얼굴이 잘생긴 탓이 분명했다. 아니면 부자가 될 걸 알고 있었거나. 녀석의 첫 여자친구도 그랬다. 머저리를 따라다니다가 녀석이 결국 감동해서 사귄 케이스였다. 머저리는 여자친구가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줬다. 어떻게 보면 애정 결핍이 아니었나 싶다. 나는 그 녀석이 그렇게 돈을 펑펑 쓰는 걸 처음 봤는데, 프라모델도 뒷전이였다. 그러자 처음에 머저리를 단순히 좋아해서 사귄 그 여자도 점차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다. 녀석의 호의를 당연시하는 게 내 눈엔 보였지만 머저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나 보다. 이게 다 간 때문이다. 나는 술을 적당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랑 머저리는 술도 자주 먹었다. 나는 그 녀석 잔에 물을 술처럼 따랐다. 그리고 머저리는 물을 술처럼 먹었는데 나온 술 값은 내가 다 냈다. 머저리는 술을 안 먹었으니까. 쪼잔한 자식 같으니라고. 그 날도 우리 둘은 그 이상한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때 머저리 여자친구가 들어왔다. 나는 손을 번쩍 들어 여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미처 못 봤고, 머저리가 사준 향수를 풍기며 지나쳤다. 머저리는 순간 얼어버렸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갔다. 머저리 휴대폰에는 여전히 여자친구의 메시지가 날아오고 있었다. 짜증나게도 기념품 선물 이야기였고 여자는 문자로 가방이 가지고 싶다고 청얼거렸다. 머저리는 심지어 알겠다고 답장을 했다. 그날 머저리는 진짜 술을 먹었다. 내가 한사코 말렸지만 절대 듣지 않았다. 잔을 채우는 손이 비들거리며 소주병이 반쯤 비자녀석은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다. 머저리 여자친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나는 심지어 머저리가 사준 커플 신발도 다른 남자와 짝을 맞춰 신고 다녔던 걸 알아버렸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나는 그 여자에게 머저리에게 몰래 기념일 깜짝 파티를 하자고 했다. 그녀는 좋다고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장소는 머저리 커플이 자주 다니던 카페였다. 나는 머저리가 병원에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커플의 지인들을 모두 불렀다.

카페는 금방 북적였고, 사람들은 머저리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다. 깜짝파티의 주된 내용은 여자친구가 머저리에게 헤어지자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다. 물론 내가 계획을 짰다. 나는 그녀에게 연습을 해보라고 했다. 나는 머저리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그녀 앞에 앉았다. 그녀는 금방

연기에 몰두했다.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 듯했다.

“오빠 미안한데 우리 그만 만나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다. “왜?” “이제 오빠가 남자로 안 보여.” 그때 카페 주인이 흥미로운 눈길을 보내며 주문한 커피를 주었다. 산더미마냥 크림을 쌓아주는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이었다. 이제 클라이맥스를 시작할 차례였다.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사실 머저리가 아닌 나였고, 나는 눈빛을 바꿨다. 아무것도 모른 채 속은 남자친구 대역에서 상처 입은 친구의 복수를 원하는 또라이의 눈빛으로, “그래? 참 안 됐네?” 나는 여자 얼굴에 물을 뿌렸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저것도 연가야? 하면서 “아, 물은 너무 싸지?” 나는 커피를 머저리 여자친구 얼굴에 뿌렸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살폈고 여자는 어이없는 표정이었다. “니가 하고 싶은 말은 잘 전해줄게. 그동안 속이느라 수고 많았다.” 내가 벌떡 일어나 문으로 향하자 사람들은 문까지 길을 텅다. 나는 문을 박차고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서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머저리의 어깨를 탁 쳤다. “이 알코올 쓰레기야. 니 여자친구가 헤어지잔다.” 나는 녀석에게 휴지를 한 뭉텅이줬다. 머저리는 한 시간 동안 울었다. 나는 옆에서 사내 놀이 눈물이 많냐며 중얼거렸지만 가만히 있었다. 녀석의 몸에서 여자친구가 사줬다는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그걸 참을 수 없이 역겨웠다. 나중에 머저리의 집에 갔을 때 아깝다는 녀석의 말을 뿌리치고 다 버렸다. 이후 머저리는 여자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 대신 프라모델을 샀다. 좋은 일이었다.

한편, 아까 말했듯이 머저리 아버지의 사업은 대학생 때부터 빛을 보더니 결국 대박이 났다. 머저리네 집안은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았다. 하지만 나는 대학생 때 머저리가 부자라서 겪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돈의 무서움을 알게 된 것 같다.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 친한 척하는 것은 정말 소름돋는 일이다. 머저리의 첫 여자친구도 그랬고 몇몇 선배들과 교수들도 그랬다. 결국 머저리는 대학교를 자퇴했다. 내가 선생 시험을 치고 있을 때에 머저리는 프라모델 회사를 차렸다. 대박은 아니지만 그러저럭 괜찮았다. 결국 머저리는 인기 짱이 되었다. 돈도 안 쓰고, 술도 안 먹고, 요상한 장난감이 집 안에 한가득 있는 남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아직 잘생기긴 했지만 이제 외모는 먹히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오히려 그사이엔 선생 시험에 붙은 내가 인기가 더 많았다. 난 이렇게 될 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머저리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이다. 세상은 역시 불공평했다. 오래간만에 만난 머저리의 표정은 싱글벙글 난리도 아니었다. 처음 만난 건 버스였다고 한다.

할머니에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예쁜 사람이 마음씨도 곱구나 해서 따라내렸단다. 그리고 무작정 번호를 받았다고

한다. 새 여자친구는 처음에 녀석을 부담스러워 했고 머저리도 눈치가 있는 놈이라 포기할 뻔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머저리는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머리를 굴렸다. 마지막 방법은 녀석이 잘할 수밖에 없었다. 프라모델이었으니까. 여자친구와 몇 번 만날 때마다 머저리는 그녀의 소지품을 눈여겨보았다. 바로 녀석이 회사에서 만드는 캐릭터였다. 머저리는 곧 그녀만을 위한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고, 내가 보기엔 요상하지만 그녀의 맘에는 이것보다 좋을 수 없는 작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주면서 사귀자고 했고 그녀는 승낙했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다. 머저리는 몇 개월 동안은 자기 직업과 집안이 부자인 것도 숨겼다. 그것은 일종의 강박증세였고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보호본능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겪은 아픔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질책할 수 없었다. 여하튼 내가 보기엔 정말 여자에게 잘 보일 매력 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여자친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누가 우리 나이 때에 부유할 수 있겠냐면서 머저리를 다독였다고 한다. 나는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했고 머저리를 졸라 삼자대면을 요청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하얀 이마가 드러나게 머리를 질끈 묶고 하늘하늘한 코트 비슷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 코트 안에 입은 분홍 니트는 몽실거리는 털이 조금 일어나 있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하고 잠시의 침묵으로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출판사에서 책을 검토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이 친구 어디가 좋아서 만나요?” “어디가 안 좋냐고 물어보는 게 빠를 걸요?” 머저리의 여자친구가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옆에 앉은 머저리의 눈에는 꿀이 똑똑 떨어졌다. 재수 없게도, 그렇다면 비장의 수를 꺼내는 수밖에 없었다. “이 친구 술 못 마시는데, 술을 같이 드신다고 해서 놀랐어요.” 머저리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아낼 절호의 찬스였다. 녀석은 간이 작아진 이후로 나 이외의 누구와도 술자리를 하지 않았다. 그의 진짜 모습은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은 자리’에서 나타났으니까. 이 건 나만의 역할이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때도 되었다. “술이요?” 그녀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 머저리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머저리도 안타까워하는 표정이다. 결국 그건 거짓말이었다. 나는 씩씩한 기분과 함께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돈도, 외모도 아닌 머저리의 무엇을 보고 만났을까? 나는 그녀를 머저리의 첫 여자친구와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머저리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다시 힘든 그의 모습을 보아야 할지도 몰랐다. 그건 짜증나는 일이었고, 내가 질책하는 상황이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머저리도 이제 행복해질 때도 됐다. 멍청하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저기요, 혹시 그거 알아요?” 머저리의 여자친구가 비밀을 말해주듯이 나에게 조그맣게 말했다. 뭐지? “저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옆에 있는 머저리를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상상음주!” 세상에, 나는 배를 잡고 웃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를 속이다니. 또, 몇 달이 지났다. 이제 머저리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직업을 밝혔다. 술을 못 마시는 이유와 돈을 안 썼던 이유도 전부. 그의 여자친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녀석을 꼭 안아주었다고 한다. 자신이 머저리를 만나는 이유는 돈도 아니었고 얼굴도 아니었고 남몰래 그녀가 좋아하는 캐릭터까지 생각한 그 정성 때문이었다고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자기를 힘들지 않게 만들 것 같아서 그랬다며 웃었다고 한다. 머저리는 복도 많다. 그렇게 둘은 양가에 결혼까지 허락받았다. 사건 지 일 년하고 두 달이 된 다음의 일이었다. 사실 나만 아는 이야기지만, 이미 두 달 전에 머저리 2세가 여자친구 뱃속에 생겼으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 하겠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좀 일찍 태어났다고 둘러댔 생각이라고 머저리는 평소의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머저리의 눈빛은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그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만족했다. 내 앞가림도 잘 못하면서. 그리고 내가 우려한 일이 발생했다. 못난 예비부부가 나에게 결혼식 사회를 요청한 것이다. 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 백이면 백 말을 더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사코 거절했지만, 머저리가 내 고등학교 시절 일기를 들먹이며 협박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하기로 했다. 그의 여자친구가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는 말로 달래기도 했고.

그리고 대망의 날 내 제자들의 축하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회가 시작될 때, 나는 준비된 대본을 꺼냈다. 그리고 목소리를 몇 번 다듬은 다음 크게 말했다. “저는 어떤 남자의 20년 된 친구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만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손재주로 결혼을 생취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공관제사령부 제8352부대
상병 임현섭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은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다가가기 편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대면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2살 임현섭 상병입니다. 입대 이전에는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싶어 사범대를 다니다가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것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소설 속 ‘나’에게 친구 ‘머저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에게 있어서 소설의 주인공인 친구 ‘머저리’는 특별한 점과 대단한 점도 없지만 어느새 옆에 없으면 가끔 생각나는 친구입니다. 소박하지만 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에서 각 인물들을 엮어주는 연결고리는 ‘프라모델’인 것 같은데요. 등장인물들에게 프라모델은 어떤 의미이었을까요?

소설의 화자인 ‘나’는 사실 프라모델이라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친구인 ‘머저리’에게는 자신의 꿈을 대변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경제 상황 속에서, 힘들었던 실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결국 의미있고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저는 ‘프라모델’이라는 소재를 통해 자신에게 아무 흥미와 가치도 없는 물건이지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끼기에 특별하게 보이는 무엇을 동시에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작품 설명

‘친구의 여자친구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란 글은 친한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입장을 글로써 나타내면 어떻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사랑에 빠지고 또 헤어지는 모습들을 독자분들도 공감하며 읽을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친근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가볍게 다가왔지만 잔잔한 여운을 주는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실제 친구를 모티브로 하다 보니 제 자신도 웃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월간 공군 독자분들도 이번 소설과 군에 있으면서 잠시 잊었던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고 연락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AF**



생활 속 자세 바꾸기

병은 우리 몸에 나타난 잘못된 생활습관의 실체이다. 9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가 보편화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목 디스크 환자도 늘고 있다. 잘못된 자세가 반복 되면 목과 어깨 근육이 뭉치고, 두통이 오거나 집중력이 낮아질 수 있다. 오늘은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살펴보자.

● 내 습관 돌아보기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목을 빼고 허리를 굽히고 일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얼굴과 목이 거북이처럼 튀어나오는 구부정한 자세가 될 수 있다. 원래 우리 목은 목뼈에 가해지는 압력과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 C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자세로 인해 정상 목뼈가 일자형이나 역 C자형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또한 고개를 꼭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과 엎드려서 책을 읽는 것도 반복되면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 여유를 즐기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소파의 높은 팔걸이를 베고 자면 건강에 해롭다. 마찬가지로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일자 목을 유발한다. 일자형 목은 목 주변 근육을 경직시켜 목 디스크, 긴장성 두통, 만성피로 등의 원인이 된다.



● 내 자세 살펴보기

전신거울이 있다면 그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자. 가슴을 펴고 발을 모으고, 앞모습과 옆, 뒷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자.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허리가 구부정하거나 목이 앞으로 빠져나온 거북이 자세는 아닌지 확인하고, 스스로 반듯한 자세가 되도록 매일 점검하자.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자세 변형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바른 자세 만드는 습관

사실 몸에 나쁜 자세 중에는 몸이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건강에 해로운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서 있을 때 올바른 자세는 머리를 바로 들고 턱은 당기고 머리를 앞이나 뒤로, 옆으로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바른 자세는 몸에 가장 무리를 주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엉덩이보다 허리를 안쪽으로 집어넣고, 몸을 쭉 펴서 옆에서 봤을 때 S자인 척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어깨와 목에 적당한 힘이 들어가 편안한 상태에서 목 주변 근육이 긴장되지 않고 적당히 이완된 상태를 유지한다.

● Tip. 올바른 자세 만드는 6가지 예방 수칙

- 1) 30분마다 두 팔을 올려 기지개를 켜거나 머리 뒤에 깍지를 끼고 스트레칭을 한다.
- 2) 앉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양쪽으로 몸을 비틀어 근육을 움직인다.
- 3)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에 맞게 올려서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 4)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모니터를 눈높이보다 5~10도 정도 살짝 낮게 내려다본다.
- 5) 턱은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듯 반듯하게 한다.
- 6) 서 있는 자세를 교정하고 싶다면, 벽에 몸을 붙이고 키를 늘리듯이 몸을 위로 당겨보자.

AF



공군 부사관후보생

제228기 모집



1644-0953
ARS 공군모집 안내전화

검색창에 **공군모집** 을 검색하세요!

모집일정

지원서접수	'16년 12월 19일 ~ 12월 30일
필기시험	'17년 1월 21일
1차전형 합격자 발표	'17년 2월 24일
2차전형(신체검사 및 면접)	'17년 5월 8일 ~ 5월 12일
입영예정일	'17년 6월 5일

지원자격

임관일 기준 만 18~27세 대한민국 국적의 남·여

병역법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0세까지 지원가능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단,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지원가능

성적우수자 선발기회 확대를 위한 임의분류 제도 운영

지원직종에 비선발된 지원자 중 임의분류에 동의한 지원자에 한해 기타직종에 선발될 기회를 부여
(지원서 작성시 임의분류 동의여부 체크)



2016년 현재 유일하게 완성된 시제기 1대는 주콥스키 비행장에 부속된 그로모프 비행연구센터(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имени М. М. Громова)에서 예비 시험이 개시되었고, 2017년부터는 국가 기관과 함께 공동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우선 예정된 계획에 따르면 양산 및 러시아 공군 인도는 2018년이며, 이를 위해 2016년 말부터 주문받은 16대의 실험 양산기의 1호기 제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16대의 기체들은 시제기와는 달리 라자 국가 계기제조공장(Опытный производный завод)에서 개발한 첨단 클래스 콕핏(Glass Cockpit)을 갖출 것이며, 실제 훈련 임무에 사용될 수준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개발 당시 SR-10은 러시아 공군의 초음속 훈련기로 제안되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야코블레프(Яковлев)에서 개발 중인 Yak-152(Яковлев Як-152)와의 경험에서 떨어졌다. 이후 이 작은 단발기는 포도펠라기인 Yak-152가 초음속 훈련기, 그리고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고음속 훈련기인 Yak-130의 시아이를 매꿔줄 중음속 훈련기를 목표로 제작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는 러시아 국방부로부터 16대 이상이 발주되어 현재 생산이 지속되고 있다.

#개발 상황

KB SAT는 단발 엔진으로 소형 훈련기와 동시에 민간용 스포츠로서의 용도까지 전면에 둔 SR-10의 설계 작업을 2007년에 시작하여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2009년 8월에 주콥스키 비행장에서 열린 МАКС 에어쇼에서 실물 크기의 모형을 전시했다. 2014년 3월에 스몰렌스크 항공장(Смоленский авиационный завод)에서 이 기체의 실물이 제작에 들어가자, 러시아 정부는 SR-10을 차기 훈련기 후보로 내정되었다고 발표했다. 2015년 8월 23일에 완성된 1대의 SR-10 시제기는 같은 해 12월 25일에 오레쉬코보(Орешково) 비행장에서 테스트 파일럿 유리 미하일로비치 카바노프(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Кабанов : 1952~) 대령이 탑승하여 40분간의 차녀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2회 비행에서는 20분간 비행을 선보였다.

현재 러시아의 신예 항공기 제조업체인 KB SAT(КБ САТ : Современные ави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 현대항공기술)가 차기 러시아 공군의 주력 훈련기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자체 개발 중인 기종인 'SR-10(CP-10)'이다. 특히하게도, 이 기체의 컨셉 탄생은 항공 공학자나 항공기 설계 전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취미로 비행기를 연구하고 즐기는 마니아였던 막심 미로노프(Максим Миронов)와 세르게이 유신(Сергей Юши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KB SAT 'SR-10'

러시아 공군의 차세대 중음속 훈련기

|Air-power Report|





전진익을 도입한 설계

SR-10 개발 주임을 맡고 있는 유리 A. 크노흐(Юрий А. Кнох)의 말에 따르면, 이 기체는 주 날개 안쪽에 최신의 복합 재료를 광범위하게 사용해 전체 중량을 줄였으며, 내구성을 확보해 기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주 날개는 -10° 앞으로 젖혀진 전진각이 주어졌고, 기수의 스트레이크와 합쳐지는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전진익은 스톨 스피드가 느린 특징이 있어 이·착륙 훈련에 유리할 뿐더러, $+8G \sim -6G$ 의 최대 과부하에서도 모든 고등 비행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한다. 4세대 이후의 전술기로서 조금 의외라면, 아직까지 FBW나 FBL 같은 컴퓨터가 조종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기체 제어는 전적으로 유압 원동기에 의지한 기계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조종실은 보통 훈련기들과 마찬가지로 복좌형이다. 모든 비행고도와 속도, 자세에서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출 좌석은 제로-제로 방식(고도 제로, 속도 제로 상황에서도 사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유명한 즈베즈다 K-36LT-3.5(K-93)를 장비하고 있다. 메이커의 발표에 따르면, 이 기체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기능 디스플레이 같은 서방식 장비나 에비오닉스로 교환할 수 있다.

SR-10의 엔진은 시제기의 경우 이브첸코-프로그레스(Ивченко-Прогресс)에서 만들어진 AI-25TL(AИ-25ТЛ) 터보팬 엔진을 달고 있다. 그렇지만 양산형의 엔진으로는 AL-55나 RD-2500, SM-100 같은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AL-55(AЛ-55)가 갖춰질 전망이 유력하다고. 그러나 AL-55 엔진을 장착하려면 엔진실의 개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제작 중인 양산 1호기에는 시제기가 썼던 AL-25TL가 그대로 장착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내장 진단 장치를 이용해 정비도 쉽고, 비행 시간당 운영비는 8,000시간에 25,000달러 수준으로 Yak-130에 비하면 겨우 3분의 1에 지나지 않아 매우 저렴하다. 교육 효과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체코제 L-39보다 10% 더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필자는 이와 같은 무형적 요소들을 백분율로 정확히 수치화하는 작업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파생형으로 경공격기와 조종사가 타지 않는 UAV 형식이 구상되고 있다. **AF**

제원

전장 / 전폭 / 전고	9.59 m / 8.40 m / 3.55 m
탑승인원 / 초도비행	2명 / 2015년 12월 25일
공허중량 / 임무중량	2,400 kg / 2,700 kg
동 력	이브첸코 AI-25V 터보팬 엔진 1기
최 대 속 도	900 km/h
순 항 속 도	520 km/h
항 속 거 리	1,500 km
상 승 한 도	6,000 m
상 승 륜	3,600 m/min.
무 장	없음
생 산 수	시제기 1대





공군 재무관리본부

연말정산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연말 상여금이나 성과금 등의 기분 좋은 소식도 많이 찾아오면 좋겠죠! 여기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조금 더 신경 쓰는 만큼 돌려주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인데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과 공제혜택 범위 때문에 눈 뜨고 코 베이는 나의 소중한 세금들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1. 소득공제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 인적공제

우리 세법상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등본에 같이 올려져 있는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이라 할 때 취업, 취학, 근무형편상 일시적인 퇴거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친정부모, 처부모, 시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본인이 부양하고, 연령제한 없이 비용 차감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미만)가 해당 됩니다.(총 급여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법상에서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부양대상의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이나 암 같은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한도도 없습니다.

■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주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리고 '주택마련저축과 월세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필수 조건으로 연말기준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의 경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주택청약준비를 위해 납입하고 있다면(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연 120만원

한도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15만원 한도) 가입 은행에 12월 31일까지 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금의 40% 한도를 공제해주고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가입 5년 내에 해지하거나 85㎡ 이상 주택 당첨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 중 6.6% 추징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별도의 서류가 아니라 증빙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금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를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의 입금자료와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합계가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을 급여액의 25%로 맞추고 그 이상 금액은 체크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좋겠죠?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초과액 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15%, 체크카드는 30% 공제혜택을 줍니다. 한도는 총급여액의 20%나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여기에 추가로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30%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모나 자녀가 사용한 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하나, 형제·자매 사용액이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불가합니다.

■ 소득공제종합한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특정 공제항목은 2,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나 주택자금공제는 한도가 적용되며,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공적보험료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II.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1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통해 환급, 징수액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 주요 항목별로 연말정산 절세·유의 팁과 유의사항도 참고해 볼 수 있으니 꼭 한번 미리 확인해보고 2016년 절세 혜택을 모두 가져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절세 관련 추가 팁으로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뿐만 아니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의 구입·임차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AF**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움츠러들기 쉬운 날씨지만 지난 여름을 생각하면 차가운 바람이 싫지만은 않네요. 연말정산의 방대한 분량을 정리하기엔 너무 부족하지만 소득공제 부분 위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와 서하늘 FC가 공군 재무코너를 시작한 것이 2016년 1월호부터였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12월입니다. 2016년의 마무리는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활기찬 2017년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ollywood English

론 서바이버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다. 하지만 그 승리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써 위험에 빠진다. 혹은 큰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에 빠진다.’ 이 문장을 뜻하는 용어가 있는데,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Winner’s Curse’ 인데요. 미국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세일러가 1992년에 쓴 책 <승자의 저주>를 통해 이 개념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피로스의 승리 (Pyrrhic Victory)’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승자의 저주’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희생이 너무 커서 진 것이나 다름없는 승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말 중 ‘상처뿐인 영광’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옛 그리스 에피루스의 왕인 피로스(Pyrrhus)는 로마를 상대로 벌인 전투에서 수차례 승리를 거뒀습니다. 병력의 3분의 1 이상을 잃었을 만큼 희생도 컸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전투를 한 번 더 이겼다면 우리가 망할 것이다.” 이 말에서 유래한 게 ‘피로스의 승리’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론 서바이버(LONE SURVIVOR)>는 ‘승자의 저주’ 또는 ‘피로스의 승리’라는 표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화는 미합중국 네이비 실이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중순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행한 ‘레드 wings 작전(Operation Red Wings)’을 그리고 있습니다. 20명 가운데 19명이 죽고 1명이 생존 됐으니 실로 처참했습니다. “The object of this mission is to capture and kill Ahmad Shah, Senior Taliban commander responsible for killing Marines in eastern Afghanistan. A Tier 1 target.” “이번 작전의 목적은, 동부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수의 아군 해병대원을 죽인 탈레반 연계세력의 지휘관이자 주적 1호인 ‘아마드 샤’를 체포해 사살하는 것이다.”

그렇게 임무가 떨어지고, 마이클 중위를 포함한 마커스, 매튜, 대니 등 네 명의 대원이 아마드 사의 은신처 구역에 침투합니다. 곧 놈의 소재는 파악되고, 이제 작전을 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뵘싸, 현지인 양치기 세 명에게 미군이 노출되고 맙니다. 그들을 제압한 대원들은 교전수칙을 내세워가며 논쟁을 벌입니다.

“US Forces will comply with the Law of Armed Conflict at all times. Use of deadly force is authorized. If you do come under attack, use the appropriate force necessary to deter or defeat that threat.”

“미군은 ‘무력충돌법’을 항상 준수하며, 살상무기의 사용을 허용한다. 만약 미군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위협을 제지하거나 적을 무찌를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라.”



대원들은 세 가지 선택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냥 보내준다. 문제는 1시간 뒤 발각될 수도 있다는 점. 둘째, 양치기들을 묶어놓고 운에 맡긴 채 현장을 뜬다. 문제는 그들이 늑대에게 잡아먹히거나 동사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목격자들을 제거한다. 문제는 그들이 비무장 민간인이라는 점. 대원들은 결정합니다. “그들을 풀어주고, 우리는 고지대에 올라가 교신을 시도한다. 통신이 터지면 구출 팀을 불러 기지에 귀환한다.” 대원들은 양치기들을 풀어주면서,

“You just won the lottery(오늘 땡 잡은 줄 알아)”라고 하며 자기들이 한 선행에 대해 뿌듯해 합니다.



“Goo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겐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지)”라고 하면서

무사 귀환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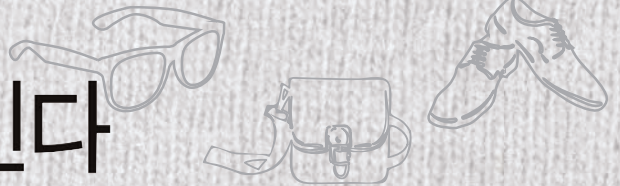
저는 이 대목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들은 통신이 안 터질 경우에 대비해 양치기들을 인질로 삼아 고지대에 끌고 가지 않았을까?” 우려했던 바대로, 양치기들 가운데 한 명은 훈련된 전사처럼 날렵하게 달아납니다. 잠시 후 적들이 벌 떼처럼 나타납니다. 무방비로 노출된 대원들은 “내가 저승사자다!”라고 적을 향해 외치면서 응사합니다. 그동안 세 차례나 연속해 교신이 두절됐지만 마침내 극적으로 통신이 연결됩니다. 치누크 수송헬기가 즉각 출동합니다. 문제는 엄호 작전을 펼칠 아파치 헬기가 모두 다른 작전에 투입된 상태여서 수송헬기만으로 적지에 들어갔다는 사실. 두 대 중 한 대가 격추되고, 타고 있던 미군 16명이 즉사합니다. 마커스를 제외한 나머지 대원도 모두 처참하게 사살됩니다.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숨어있던 마커스를 발견해 버린다는 사실. 그가 구출돼 생환하기까지의 극적인 스토리는 스포일러여서 가려두기로 합니다. **AF**





TREND's GOOD

트렌드가 보인다



스마트 의류(Smart Wear)

24절기는 참 신기합니다. 입동(立冬)이 지나니 곧바로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네요. 두툼한 외투를 겹쳐 입어도 칼 바람 앞엔 속수무책! 혹시 이런 생각해본 적 없나요? '날씨가 추워지면 외투도 내가 원하는 만큼 따뜻해질 순 없을까?'하고 말이죠.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과학 기술을 탑재하고 더 똑똑해진 '스마트 의류(Smart Wear)'를 만나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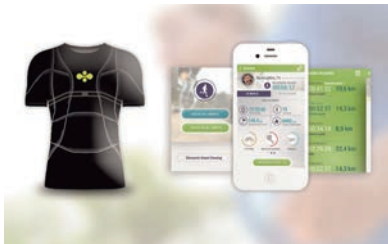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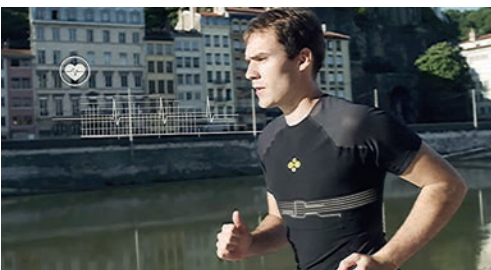
스마트 의류(Smart Wear)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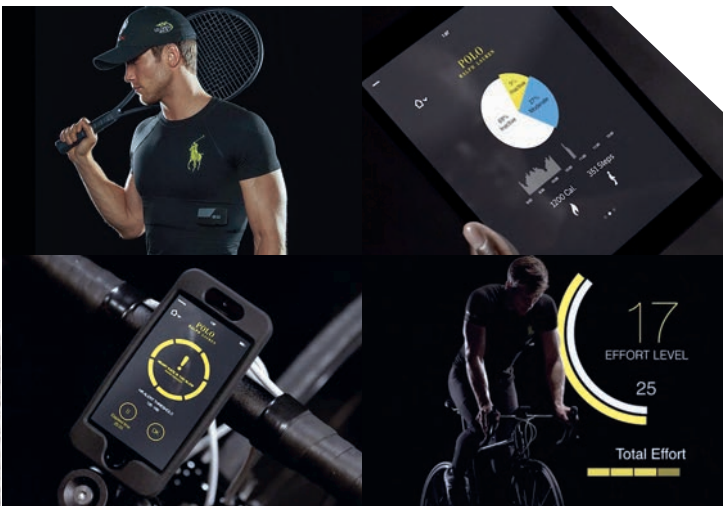
고 기능성 섬유에 디지털 센서, 초소형 컴퓨터 칩 등이 들어 있어 의복 자체가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미래형 의류를 말합니다. 의료 기술과 만나 스포츠와 생명 보호 의류로 개발되기도 하고, IT 기술이 접목되어 발열 소재나 LED 센서를 단 의류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트레이너로부터 실시간 건강 관리를!

시티즌사이언스, 스무지 D-셔츠 (SMOOZI D-SHIRT)

스타트업 기업 '시티즌 사이언스'의 창립자인 장 뢰 에랑(Jean-Luc Errant)은 의료 관련분야에서 일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없어 안타까웠던 그는 '옷에 장치를 부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스무지 D-셔츠'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티셔츠엔 사람의 체온과 심박수, 움직이는 속도는 물론 소모 칼로리와 운동량, 착용자의 실시간 위치와 고도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초정밀 마이크로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비밀은 셔츠 뒤에 숨겨져 있다는군요. GPS만 분리하면 일반 옷과 같이 세탁은 물론, 다림질도 가능합니다. GPS 기능을 활용하면 티셔츠를 입은 사용자가 자신의 병원이나 트레이닝 센터와 연동해 전문가에게 실시간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계다가 등산과 같은 야외 운동 시 위험에 빠지더라도 빨리 구조될 수 있습니다.





이고 운동만 해도 그날 결과를 스마트폰 속으로!

폴로 란프 로렌, 더 폴로 테크 셔츠 (THE POLO TECH SHIRT)

테니스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이 티셔츠엔 센서가 달려있습니다. 티셔츠를 입고 운동한 사용자의 신체 활동 지수가 블루투스로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에 전송됩니다. 심박수, 호흡, 스트레스 지수가 연동되고, 센서를 이용해 자세를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온도로 조절하는 외투

블랙야크, 야콘 H (YAKON H)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옷이 실제로 판매 중입니다. 이 점퍼는 등판에 발열 텍스타일을 부착해 전원을 공급해 열을 내는 방식입니다. 안전하게 코팅되어 전자파는 물론 방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군요! 발열 장치와 하단에 달린 마그네틱 커넥터에 연결하면 GPS가 가동되어 옷을 입은 사람의 현재 위치 온도를 파악합니다. 커넥터로 직접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블루투스로 연결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발열 정도를 4단계(절전, 쾌적, 따뜻, 파워)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35도부터 42도사이)와 습도로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똑똑한 양말

히심론, 센서리더 양말 (SENSORIA SOCKS)

평범한 양말 같아 보이지만 바닥에는 바닥엔 3개의 센서가 내장됐습니다. 걸을 때 바닥에 닿는 발 모양, 소모된 칼로리와 사용자의 체중과 걸음 수와 속도를 분석하죠. 하중이 실리는 부분을 표기해 걸음걸이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발목에 달린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활동량을 수집하고 기록해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합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당뇨병 증상으로 고통받는 다리의 혈액 순환 저하, 운동 신경이 약해지는 징후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죠.

산과 바다에서 조난 시 위급 센서 작동

코오롱 스포츠, 해상안전 IoT 재킷과 산악안전 IoT 재킷

아웃도어 의류에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이 무선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결합해 위기 상황에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조를 돕는 옷이 탄생했습니다. 코오롱 스포츠가 통신회사 KT와 공동 개발한 산악, 해상 안전 재킷이 그것. 해상안전 IoT 재킷은 물에 빠지는 순간 수압감지 센서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구명튜브가 부풀니다. 조난자의 위치 정보는 물론, 심박수와 건강 상태도 주기적으로 전송됩니다. 산악안전 IoT 재킷은 앞판 하단에 위치한 LTE 모듈 센서와 6축 센서가 조난 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상황실로 알립니다. 조난자의 위치와 상태를 살필 수 있어 빠른 구조가 가능하죠! 소매엔 신체 정보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심박 센서와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알람용 LED가 달려있습니다. **AF**





생각하는 그림

마의 10초 벽

#1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미국 국가대표 짐 하인스는 9초 95의 기록으로 100m 육상 경기 역사상 최초로 10초의 장벽을 깼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기록은 15년간 깨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2 전광판에 9초 95라는 기록이 뜨자 그는 두 팔을 벌리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지만 하인스는 마이크를 차고 있지 않아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3 시간이 흘러 1984년, 기자 데이비드 팔은
지난 영상 자료를 돌려보다가 기록을 깬 하인스가
중얼거리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취재
하러 나섰습니다. 당시 무슨 말을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하인스는 답변했습니다.



#4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근섬유가 견딜 수 있는 운동
한계점이 초당 10m를 넘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육상계에서는 이를 전설처럼 맹신했지만 저는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5km를 전력 질주하는
연습을 하였고, 올림픽에서 9초 95의 기록을
세운 순간 ‘아, ~ 10초는 벽이 아니라 문이었어.’라고
말합니다.”

#5 닫혀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용기,
믿음, 노력이 필요합니다. 짐 하인스는 10초
라는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음 속 깊숙이 숨어 있는 용기를 찾아내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적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6 성공의 문은 그저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속 용기를 찾아 잠재의식이 분명하고 의미 있는 목표
를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노력으
로 그 문을 열어젖혀야 합니다. 용기라는 열쇠로 성
공의 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하는 우
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F**



담벼락

그 마흔여덟 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성탄절)」



제11전투비행단

보급대대

상병 이현우

크리스마스 이야기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는 엄청 기대되는 날 중 하나였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 시절, 크리스마스 이브 날 산타클로스가 어떤 선물을 가져다줄지 기대하고 잠들곤 했습니다. 7살 때 쯤입니다. 12월이 다가왔고, 한참 크리스마스를 목 빠지게 기다리던 때에 하루는 친구에게서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아!'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에게 산타클로스란 존재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말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존재였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럼 크리스마스 날에 선물은 누가 가져다주는 건데?"라고 제가 반문하자 이에 친구는 "바보야! 그거 부모님이 가져다주시는 거야. 여태 그것도 몰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저히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이에 친구와 크게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엄마 진짜 산타클로스는 없어?"라고 묻자 엄마는 "산타클로스가 왜 없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네 머리 위에 선물이 놓여 있을거야"라고 대답해주셨습니다. 이 말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미 들은 이야기가 있기에 하루 종일 '산타클로스가 있는지, 없는지'로 혼자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어디 한번 잠 든 척 하면서 내가 알아보겠다!'였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어가자 저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자마자 '오늘은 기필코 산타클로스의 존재 유무를 알아내리라!'고 결심하고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열어가며 잠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나이에 잠을 이겨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지라, 깜빡 잠들고 말았습니다. '아뿔싸!' 하고 황급히 깨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쯤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계를 본 후 제 베개 위를 뒤져보니 제 머리맡에 선물이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크게 실망한 저는 '올 한 해는 착하게 살지 않았구나'라는 자책감과 함께 '진짜로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실망감을 동시에 안고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잠들기 위해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갑자기 제 방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산타클로스인가 보다'하고 두근대는 심장을 억지로 참아가며 누구인지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실눈을 뜬 채로 잠든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아주 익숙한 냄새가 났고, 이에 이 냄새는 아버지 냄새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 머리맡에 선물을 놓으시면서 "우리 현우, 올해는 아빠가 네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서 아무거나 샀다. 내년엔 네가 갖고 싶은 것, 더 좋은 걸로 사줄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산타클로스의 정체가 아버지란 사실에 실망감, 놀라움보다는 가슴 한편이 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아버지에게 이런 저런 투정도 많이 부렸고, 아버지가 많이 바쁘시다 보니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이때를 계기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는 두 가지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장난감, 그리고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





제10전투비행단
현병대대
병장 김성준

다들 그랬던 블랙 크리스마스

하늘은 새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싸늘한 바람만 불었다. ‘아, 무슨 크리스마스인데 봉사활동 이야’. 내가 교실에 들어서자 귀에 들렸던 말이었다. 벌써 5년이나 되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나의 고등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였다. 황금 같은 휴일에 학교 봉사활동 동아리 주관으로 양재동 판자촌 연탄봉사가 잡혀버린 것이다. 그렇게 아침 댓바람부터 동아리 친구, 후배할 것 없이 서로 입이 부르토도록 칭얼거리며 그곳으로 향했다.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도착하자마자 느낀 점은 놀라움과 부끄러움이었다. 대한민국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허름한 곳이 있다는 놀라움과 우리를 보며 정말 티 없이 해맑게 반겨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미소를 보며 방금 전까지 칭얼거렸던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있었다. 그날 하늘은 새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싸늘한 바람만 불었다. 주변 곳곳엔 이 전날 거주지 사람들과 그곳에서 내쫓으려는 사람들의 싸운 흔적들이 보였고, 비장한 각오들이 적혀져 있는 현수막들도 걸려있었다. 정말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모습들이었다. 나와 내 친구들은 조용히 배달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연탄 1500장을 옮기기 시작했다. 묵묵히 절반 정도 옮겼을 때, 한 할머니께서 내게 품에 계속 쥐고 있던, 온기 가득한 커피 한 캔을 주셨다. 그러면서 할머니께서는 “한창 뛰여 놀아야 할 나이인데 이런 빨간 날에 늙은이를 도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번 겨울에도 어떻게 버텨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하시고는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셨다. 할머니의 말씀은 나머지 절반을 옮기는 동안에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성탄절이라는 날의 의미를 나는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단순히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바쁜 일상 속에서 휴식을 얻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한 번쯤은 주변을 돌아봐 힘들어하고 있거나 또는 외면받고 있었던 이들에게 나눔을 베푸는 날도 성탄의 의미가 될 수 있었다. 우리는 4시간에 걸쳐 연탄을 모두 나눠 드렸고 학교로 돌아가기 전 판자촌 어르신들께서 배웅해주셨다. 어르신들의 미소는 왠지 나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어쩌면 지키지 못할 재회의 약속만 남기고 돌아서야 했다. 여전히 버스 정류장에서 바라본 판자촌의 하늘은 새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따뜻하고 거무스름한 연탄 때는 연기가 조금씩 피어올랐다.



제19전투비행단
시설대대
병장 박창석

크리스마스 산타의 선물

초등학교 6학년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8시, 우리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셨다. 위험한 수술이었던 모양이었다. 의사로부터 어머니가 수술 중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우리 가족은 근심에 빠져 있었다. 수술이 시작되고 우리가족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자정 즈음 되었을까, 아버지는 나와 동생을 안심시키고 눈 좀 붙이라고 하셨다. 나와 동생은 피곤함에 잠시 잠을 청하였고 그때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의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들판 위를 정처 없이 걷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계속 걷다보니 엄청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다. 트리 앞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산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산타는 나에게 낯익은 반지와 화려한 팔찌를 건네주면서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였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반지를 보며 생각에 잠긴 사이 어느새 산타는 홀연히 사라졌다. 나는 반지를 선택하였고 그 순간 팔찌는 사라지고 작은 불꽃이 일더니 삽시간에 들판은 불바다가 되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히 불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나는 기를 쓰며 탈출해보려 해보았지만 무리였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반지에서 빛이 흘러나오면서 “아들 엄마가 지켜줄게”라는 말이 들리며 꿈에서 깨어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머니는 아직 수술 중이셨다. 가슴 졸이며 기다리길 한 시간여, 마침내 수술이 잘 끝났다. 일주일 뒤 어머니에게 내가 꾸었던 꿈을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수술 중 꾸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어디론가 이동했는데 도착한 곳에는 넓은 강이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려 했는데 돈을 내야 태워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내리려던 그때 손에 없던 반지가 생겼으며, 돈 대신 반지를 내고 배를 탈 수 있게 되어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 어머니는 매우 건강하시며, 나는 이날 있었던 일이 우연이 아닌 ‘크리스마스 산타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AF**



책 읽는 공군



황옥이와 함께 하는 강릉기지 공군 이야기

김영옥 지음
한국문화관광콘텐츠개발(주) 펴냄

인터넷 검색창에 ‘강릉’을 입력했다. 대부분의 검색 결과는 강릉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목적을 반영한 듯, 손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다. ‘강릉여행’, ‘경포대해수욕장’, ‘주문진시장 맛집’, ‘정동진’……。 이렇듯 강릉은, 역사적 의미보다는 관광지로서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군과 엮어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강릉 곳곳에는 공군의 역사가, 전투조종사들의 피와 땀, 충절과 애국심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황옥이와 함께 하는 강릉기지 공군 이야기>라는 책은 그 숨겨진 보물찾기를 하는 이들이 길을 찾기 위해 지녀야 할 지도와도 같다.

공군 강릉기지의 6·25전쟁 전과는 알게 될수록 놀랍다. 그 당시 ‘승호리철교 차단작전’, ‘평양대포격 작전’,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 등을 포함해 공군 작전의 92%를 담당했던 곳이 바로 강릉기지다. 이 책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부터 전달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강릉기에 대한 설명들을 나열하고 있다. 원래는 삼국시대 화랑들의 수

련장이었다는 기지의 지리적 기원을 설명하고, 영화 <빨간 마후라>의 내용과 주인공 나관중 소령의 실제 모델인 ‘유치곤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문화적 유산을 소개하기도 한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주요 작전과 전투조종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강릉기지의 전사(戰史)를 소개할 때에는 이야기의 갈래가 이곳저곳으로 쉴 새 없이 뻗어나간다. ‘F-51D 무스탕 전투기와 F-86D 세이버 전투기 전시장’을 소개하는 부분에는 6·25전쟁에서 활약한 전투기들의 소개와 더불어 미국 공군 딘 헤스 대령의 감동적인 전기(傳記)를 들려주고, ‘강릉 통일공원’에서는 우리 공군의 자랑인 ‘승호리철교 차단작전’과 더불어 2006년 5월 5일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탈출을 포기한故 김도현 대위의 애국애족 정신을 전해준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중형무진하며 공군과 강릉의 역사를 말하는 책의 스토리텔링은, 동해의 한 관광지로서만 알려졌던 강릉이라는 도시를 구국의 역사와 공군의 충절이 살아있는 도시로 되살려놓는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평온한 도시’를 선물한 공군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일이기도 하다. 책에서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전투조종사들의 일화를 말한다. 351고지에서 활약하다 산화한故 임택순 대위,故 신철수 소령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그 신념을 이어 받아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故 이일영 중위의 일화 등 책을 읽고나면, 지금의 대한민국과 강릉의 평화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매년 1월 1일, 해돋이를 보기 위해 정동진을 찾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어제와 똑같이 평온한 내일의 하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기 위함이 포함돼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릉의 하늘은, 대한민국의 하늘은 선배 공군인의 많은 희생과 노력 덕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 강릉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이 책을 들고 감이 어떨지 싶다. 맛있는 먹거리를 소개해주진 않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던 더욱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AF**

글
중위(진) 이준건
공군본부 홍보과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연락처:

도로명주소: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2 8 0 0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시연을 응모해 주세요.

2016

December

Vol.462

백일장 마흔아홉 번째 주제

새해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 lsw1004ok@af.mil

인 터 넷(E-mail) : afcmct@korea.kr

전화번호 : 042-552-6943

POSTCARD

월간「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월간 <공군> 12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12월호 퀴즈 정답

1. 2.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공군」12월호

Quiz

잘 읽고 정답은
상단 엽서에 적어주세요~

마감일 : 12월 31일까지

1. 6·25전쟁 중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호주공군에서 파견한 비행대대는?

- ① 10비행대대 ② 77비행대대 ③ 102비행대대

2. 공군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아 대학교를 학업하고, 졸업 후 공군 장교로 임관하는 모집제도는?

- ① 공군장학생 ② 학군(ROTC) ③ 학사사관후보생

10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③ 24개월 2. ② 스페이스챌린지

당첨자 서울 구로구 이춘성 / 울산 북구 심재호 / 경남 양산시 이정순
충남 홍성군 최재호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사이버테러 군사보안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c.mil.kr)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 (군·공중 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인트라넷, 인터넷, 모바일 신고/상담시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

2016
December
Vol.462



보내주신 독자엽서 중
매월 추첨을 통해 당첨되는 분께
멀티비타민 '웰 플러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